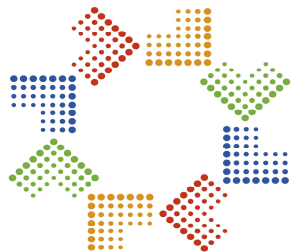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2014. 2. 13.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차 례

I . 정책추진 여건	1
II . 2013년 성과 및 평가	3
III .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9
1. [꿈끼]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20
2. [창조] 창조적 인재를 기르는 질 높은 대학	33
3. [도전]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능력중심의 사회	42
4. [희망]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열린 기회의 나라	50
IV . 기대효과	63
V . 소통 및 홍보계획	64
[붙임1] 가치전략 체계도	66
[붙임2] 교육부 소관 국정과제 현황	67
[붙임3] 세부 추진일정	69
[붙임4] 교육부 기관 현황	81

I. 정책추진 여건

글로벌 교육환경 변화의 큰 흐름 지속

- 미래인재 핵심역량인 인성과 창의성 교육에 대한 지속적 강조
 - 전 세계적으로 체력 증진, 인성 함양 및 창의력 제고를 위한 행복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
 - ※ (프랑스) ‘오전 수업, 오후 체육’ (약250교 대상 시범 실시)
 - (호주) ‘예술가들과 협력수업을 통한 창조성 함양 수업’ 실시
-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 요구 강화
 -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경제 활동인구 수급 등에 대한 국가적 관심 증대
-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에 대한 교육·연구 부문 역할 재강조
 - 기후변화, 경제양극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교육적 대응 및 인문학적 성찰과 정신가치 재강조에 따른 교육받은 지식인 역할 부각
 - 융합기술분야 등 신기술 개발에 있어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학 교육·연구의 질적 혁신 요구 증가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변화

- 학생들의 꿈을 살리는 행복교육과 인성교육 확산 필요성 증대
 - 우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높은 수준이지만, 지식·입시 위주 교육에 따라 소홀해진 인성과 도덕성 교육 강화 요구
 - ※ KEDI 교육여론조사(14. 1월) : ‘인성중심 수업 강화’에 대한 관심도/동의도 최상 수준
 - 학생들의 꿈끼 발현과 인성·창의성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개편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역할 요구

□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학 구조개혁 및 질적 발전 요구 확산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충원 우려 확산 및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 노력 미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불만 확대

※ 대학 미충원 예상규모(천명) : 38.3('17) → 88.2('20) → 160.8('23)

※ KEDI 교육여론조사('14. 1월) : 대학 인재양성 기능 및 교수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가 5점 만점에 각각 2.31점('12. 2.85점)과 2.37점('12. 2.75점)

□ 사회적 수요와 교육간 불일치 문제 제기 지속

- 대기업 중심의 취업 준비 행태, 직업교육을 통해 양성한 인력과 산업체 요구 간 불일치 문제 여전

※ 신규취업자 직무불일치 비율('13, 노동연) : (전문대) 26.0%, (특성화고) 15.3%

-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가속화에 대응하여 은퇴자 및 경력단절 여성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필요

※ 베이비부머(55~63년생, 714만명) 은퇴 가속화 ('11~)

※ 여성 고용률('13, 고용노동부) : 53.9% (20대는 약 70% 수준)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 절실

-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되었으나 관련 법률 마련, 재원 확보 등 안정적 기반 확보 시급

- 사교육비의 1/3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은 과중한 가계부담 유발

※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결과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 사교육비	21.6조원	20.9조원	20.1조원	19.0조
영어 사교육비 (총 사교육비 중)	7.2조원	7조원	6.8조원	6.5조원

👉 글로벌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에 대한 내적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전략과 과제 설정

Ⅱ. 2013년 성과 및 평가

1 국정과제 추진 성과

【초·중등 교육】

중학교 자유 학기제 (국정과제 66)

- (성과)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시범운영, 진로·체험활동의 확대를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및 학업 흥미도 상승
 - ※ (학생) “다양한 체험활동과 협동학습으로 학교가 즐거워졌어요”
 - 학교생활 만족도 : (사전) 3.34 → (사후) 3.72 / 42개 연구학교 학생 7,457명 대상
 - ※ (교원) “교수·학습이 개선되고, 학생들의 변화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껴요”
- (한계) 자유학기제로 인한 학력저하 가능성, 자유학기 이후 일반 학기로의 적응 등에 대한 학부모 우려 여전
 - ※ 학교생활 만족도 : 교원(3.88) > 학생(3.85) > 학부모(3.45)
 - ※ (사례) 자유학기제는 1학년 2학기에만 시행되어, 2학년이 되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지 걱정됨('13. 9월 ○○일보 학부모기고)
-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는 대폭 확대되는 데 반해 학생 체험인프라는 부족한 실정
 - ※ 연구·희망학교 약 600교('14) → 약 1,500교('15)
- 단위 학교차원의 체험처 발굴 등 교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자유학기 학생체험활동에 필요한 예산 부담 예상
- (개선방향) 자유학기제 운영 사례를 활용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홍보 확대
 - ※ 「EBS 다큐멘터리」('14. 3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이야기」('14. 3월) 제작
 - ※ 자유학기제 운영성과 비교연구를 실시하고, 결과를 학부모 홍보에 적극 활용
-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체험 인프라 구축 추진

학교폭력·학교안전 (국정과제 76)

- (성과) 범부처 협업과 민·관 합동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학교 폭력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 ※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대책” 수립('13. 7월)
 - ※ 피해응답률 감소 : 9.6%('12) → 2.1%('13)
-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로 피해학생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점차 개선
 - ※ 학급당 예방교육 시간 : 149분('12. 2학기) → 203분(36.4% ↑, '13. 1학기)
 - ※ 피해학생 고통에 공감 : 69.9%('12 하반기) → 74.4%('13 상반기) → 76.6%('13 하반기)
- 위기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병·의원 등 전문기관 서비스와 연계 실시
 - ※ 초1·4, 중1, 고1(210만명) 대상 실시, 위기학생 관심군 4.9%(약 10만명)
- (한계) 학교폭력의 전체적인 수는 감소하였으나,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한 사이버·언어폭력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
 - ※ 사이버 폭력 : 41천건(7.3%, '12) → 16천건(9.7%, '13)
 - 언어 폭력 : 190천건(33.9%, '12) → 57천건(35.3%, '13)
-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
 - ※ 학교폭력 안전 체감 ‘불안하다’(안행부) : 68.6%('13. 7월) → 52.8%('13. 12월)
- 지역별로 관심군 학생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의 차이가 큼
- 학교 내 안전기준이 미흡하고 급식시설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하여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필요
- (개선방향) 사이버·언어 폭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예방교육 및 건전한 언어문화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연극·체험교육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적극 확대하여, 학교폭력 체감도 대폭 감축 유도

예술·체육·인성교육 (국정과제 66)

- (성과) 바른 인성 함양과 체력 증진 등을 위한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및 교실수업 및 학교문화 변화를 위한 민간·유관부처와 협업
 - ※ 스포츠클럽 참여 학생 수 : 208,730명('12) → 334,522명('13)
 - ※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학교 수 : 300교('12) → 400교('13)
- (한계) 지식·입시 위주 교육으로 학교 내 뿌리내리는 데 어려움
 - 예술·체육 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종료 후 지속적 운영 가능성 및 읍·면 지역 학교들의 스포츠강사 확보 곤란 등 문제 대두
- (개선방향) 학교내 예술·체육 교육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 운영 실시
 -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사회단체를 통한 사회문화 운동 지원 강화

대학입시 간소화 (국정과제 29, 67)

- (성과)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13. 10월)에 따라 전형방법 수를 축소하고 학생부 반영 비율을 확대
 - ※ 대학별 전형방법 수 : 6.76개('14학년도) → 4.15개('15학년도)
 - ※ 학생부 반영 비율 : 44.5%('14학년도) → 54.6%('15학년도)
 - ※ 대입간소화 방안에 대한 지지율('13. 9월) : 학부모 88.8%, 교사 91.8%, 대학 67.6%
- (한계) 대입전형 간소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논술·외부 스펙 등 반영에 대한 불안감 상존
 - 학교현장의 진학상담 역량은 학생·학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 수험생의 대입 지원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한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은 민간 업체의 가처분신청으로 사업 지연
- (개선방향) 대입 간소화를 지속 추진하여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고 논술 등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요소의 대입반영을 지속적으로 감축
 -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구축은 민간 대행업체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14년 상반기 중 착수 추진

교원 교육전념 여건 조성 [국정과제 69]

- (성과) 교원평가제도 개선 1단계 시범운영, 학교단위 교무행정업무 지원팀 운영 확대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기반 구축
 - ※ 교원행정업무지원팀 구성률 : 60.6%('12) → 76.0%('13)
- (한계) 교원평가 실시기간(9월~익년 2월)이 길어 현장 교원의 교원 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
 - 시·도 교육청간 학교단위 교무행정업무지원팀 구성에 편차가 심함
 - ※ 서울·경기·강원은 95% 이상 vs 충남·충북·전북은 20% 미만
 -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국제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 증원이 필수적이나, 재정여건 악화와 학생수 감소로 한계
- (개선방향) 행정업무 경감 지속추진 등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고등 교육】

인문학 진흥 [국정과제 113]

- ☐ (성과) 인문학 연구자 역량 제고와 함께 연구 성과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급하여 인문학 재도약의 계기 마련
 - ※ 인문한국(HK)사업 결과 저술 1,900여권, 논문 4,200여편 발표('08~'13)
 - ※ 총 46,597명의 국민이 시민인문강좌·석학인문강좌 참여('13)
- ☐ (한계) 대학의 인문 관련 학과 폐지 등 인문학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인문학 성과를 산업과 연계하려는 노력은 아직 미흡한 상황
- ☐ (개선방향) 인문학 연구 진흥 및 연구 성과를 산업과 연계 활성화 추진, 인문학 대중화 지원

대학생 창업 활성화 [국정과제 15]

- ☐ (성과)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13.9월)하고 창업 친화적 대학 여건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내용 : 창업친화적 대학 교육제도 마련, 창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 지방대학 창업역량 강화 및 창업 우호적 사회문화 조성 등
- ☐ (한계) 학업과 창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사시스템이 미흡하고 창업교육 콘텐츠 부족과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과다
 - ※ 창업휴학제 도입 대학은 15교 수준('13.)
- ☐ (개선방향) 창업 친화적 학사 제도 구축 및 사회문화 조성, 창업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와 해외 취업·창업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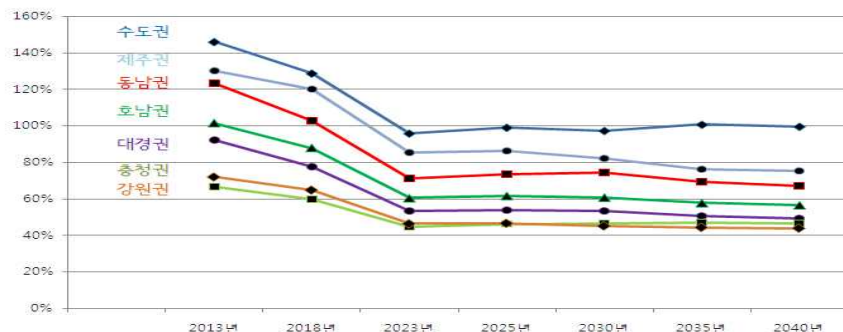
산학협력 활성화 (국정과제 68, 103)

- (성과)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 추진 및 BK21플러스 사업 신설 등으로 산업체 수요 등을 고려한 창의인재 육성 초석 마련
 - ※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 670건('12) → 1,230건('13)
- (한계) 대학이 논문·이론위주의 연구 활동에 치중하고 있고, 산업과 연계한 교육 및 기술개발 등은 여전히 미흡
- (개선방향) 논문위주의 R&D 과제 평가 방식 개선, 산업체 맞춤형 교육·연구 및 대학 기술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과 연계 활성화

지방대학 지원 확대 (국정과제 103)

- (성과) 지방대 육성법 제정('13.12월) 및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확대 개편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내용 : 지역인재 채용확대 등
 -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14, 2,031억원) : 기존 교육역량강화사업('13) 대비 40% 증액
- (한계) 학령인구 감소로 일자리 창출, 인력 양성 거점인 지방대학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지역 성장의 정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2013년 이후 대학 소재 지역별 총원율 전망>



- (개선방향) 미래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대학 지원, 지역인재채용 확대 등을 통해 우수인재의 지역 유입 제고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국정과제 68)

- (성과)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마련(‘13. 10월) 및 “고등교육 재정 지원계획” 수립(‘13. 12월)으로 현 정부 대학 정책 청사진 제시
 - ※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산학협력·평생학습, 연구역량강화, 대학교육혁신 등 4개 영역 13개 과제 제시
 - ※ 고등교육 재정 지원 계획 :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 지방대·전문대 지원 확대, 대학 특성화 사업 신설 등 재정지원 사업 재편
-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수립(‘14. 1월)으로 체계적인 정원감축과 평가체제 개선으로 특성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방향 제시
 - ※ 주요 내용 : ’23년까지 16만명 감축 등 정원감축 규모 제시, 정량·정성 평가 병행 등 새로운 평가체제 도입,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
- (한계) 원활한 구조개혁을 위해 정원감축, 자발적 퇴출 경로 마련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나, 사회적 합의는 부족한 상황
 -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OECD 평균에 미달
 - ※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GDP 대비 %, ’13) : 한국 0.86%, OECD 1.1%
 -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 중복 배제 및 재정지원 사업 평가항목 정비를 위한 시스템 부재로 재정 운용 효율성 저하
- 각종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대학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인식
 - ※ KEDI 교육여론조사(’14.1) : 대학재정에 대해 79.9%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응답
- (개선방향) 국회, 대학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구조개혁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
 -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고등교육 재정투자규모 GDP 대비 1% 수준 달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지원규모 확대
 -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항목 분석·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성 제고

【능력중심사회 구현】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국정과제 70, 73]

- (성과)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직무능력중심 교육 토대 마련
 - 교육부·고용노동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NCS 및 학습모듈 개발
 - ※ NCS 정책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NCS 운영위원회”(교육부·고용노동부 차관 공동위원장)와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NCS 구축 협업 T/F” 구성·운영
 - ※ NCS 254개 개발, NCS 학습모듈 55개 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화고·전문대학 교육과정 개편 추진
 - ※ (특성화고) NCS 교육과정 시범운영(3교), 교원연수(46개 과정, 526명)
 - ※ (전문대학) NCS 교육과정 시범개발(63교 161개 학과), 교원연수(3개 권역, 600명)
 - NCS 기반으로 일-교육-자격을 연계하는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기본계획 수립
- (한계) 정책추진 초기 상태로 눈에 띄는 성공사례가 적어, 국민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
 -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연공서열 중시 관행 여전
 - 산업별협의체(SC)의 역량이 성숙되지 않았으며, 산업계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일부 어려움 존재
- (개선방향) 성공모델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 추진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계 및 범부처 협력을 통해 성공 모델 발굴 및 확산
 - NCS가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핵심기제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 홍보 추진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국정과제 70)

- (성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으로 전략산업 분야 현장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기반 마련
 - ※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 : 123교('12) → 201교('13)
 - ※ 마이스터고 : 37교('12) → 39교('13, 해외건설·조선해양플랜트 분야)
- 취업희망자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고졸 취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 ※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 정원의 2.1%('13학년도) → 10.9%('14학년도)
 - ※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 16.7%('09) → 25.9%('11) → 40.9%('13)
 - ※ 마이스터고 1기 졸업생 취업률 : 90.3%('13. 4월)
- 고졸 재직자가 일·학습을 병행 할 수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 시행 대학을 확충하고, 전문·희소계열의 후진학을 위한 대표 대학 지정
 - ※ 재직자 특별전형 시행 : 3교('10학년도) → 70교('13학년도) → 87교('14학년도)
 - ※ 전문·희소계열 대표 대학 지정·운영 : 농업·마사 등 4개분야 7교
- (한계) 고졸 취업 및 후진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
 - 공공부문의 고졸채용 규모 축소 등으로 선취업 후진학 정책 지속에 대한 현장의 우려 존재
 - ※ 공공기관 고졸채용 계획 : 2,508명('12) → 2,512명('13) → 1,993명('14)
 - 재직자 특별전형의 충원율이 낮고, 기업들도 근로자 후진학 여건 마련에 소극적
 - ※ 재직자 특별전형 충원율 : 23.8%('13학년도)
- (개선방향) 관계부처·산업계 협력강화로 고졸채용 확산 및 교육 지원체제 확충을 통한 다양한 성장경로 구축
 -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직업교육으로 고졸 취업자의 역량제고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체제 구축 [국정과제 72]

□ (성과) 100세 시대 대비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13~’17)” 수립으로 전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 로드맵 마련

※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지역사회의 학습역량 강화 등 4개 영역 29개 과제 제시

○ 읍·면·동 단위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연계되는 평생학습 지원체제 마련

※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84개(’13년 시범운영), 시·군·구 평생학습도시 118개(’13, 신규 28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10개(’13, 신규 3개)

○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성인친화적 대학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현장호응도가 높은 베이비부머를 위한 비학위 과정 운영

※ 참여 대학·학과(25교 69개 → 47교 147개), 수혜자(8,273명 → 14,435명)

□ (한계) 평생교육 기회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미흡

※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지원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기회 보장 필요” (유네스코 북경선언, ’13. 10월)

※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증가 : 178,971개(’12) → 180,843개(’13)

○ 평생교육 정보가 유기적 연계 없이 산재하여 평생학습 접근 및 이용에 한계

○ 대안적 교육기관(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제도의 양적 성장에 비해 평가기준 정비 등 질 관리에는 미흡

※ 학점은행기관 567개 평가인정과목 27,019개, 사이버대학 19교

□ (개선방향) 취약·소외계층, 소외지역, 성인학습자 등 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 산재된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정보를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온·오프라인 연계체제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소외계층 교육기회 확충 [국정과제 51, 52, 126]

- ☐ (성과) 농어촌 학생, 다문화·탈북학생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수립('13. 11월)
 - ※ 농어촌 ICT 지원 : 300교('13), 1군 1우수중학교 : 20교('13)
 - 다문화 예비학교 : 26교('12), 52교('13)
- ☐ (한계)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촌간 격차, 다문화·탈북학생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은 교육효과 발현을 제약
 - 학업중단 학생은 특성상 정확한 실태 파악이 곤란하여 지속적 추적 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제 강화 필요
- ☐ (개선방향) 지역간·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세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국민 인식 전환 노력 지속 추진 필요

장애·학력부진 학생 등 맞춤형 교육지원 [국정과제 50, 66]

- ☐ (성과) 특수학교 신·증설 등 장애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기초 학력부진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 특수학교/학급 : 156교/13,013개('12) → 163교/13,612개('13)
 - ※ 특수교원 정원 : 9,416명('12) → 10,072명('13, 656명 증원)
 -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 32개소('12) → 129개소('13)
- ☐ (한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미실시에 따라 초등학생 학업 성취 수준 파악 및 체계적 지원에 애로
- ☐ (개선방향)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학습부진 유형별 전문화된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추진

누리과정 확대 및 돌봄기능 강화 (국정과제 63, 64)

- ☐ (성과) 만3~5세 누리과정 모든 가구에게 월22만원씩을 지원하고 초등돌봄 교실 전면확대에 대비 시범학교 운영(78교)
 - 지역돌봄협의체 구축(178개)을 통해 돌봄 서비스 연계 체제 구축
- ☐ (한계) '14년 초등돌봄 교실 확대에 따라 희망하는 1~2학년 전원을 수용하기 위해 일부학교에서는 일반교실을 개선하여 활용 불가피
- ☐ (개선방향) 일반교실을 초등돌봄 교실로 활용할 경우 기존 돌봄 전용교실을 거점교실로 운영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
 - ※ 초등돌봄교실 4,026실 확충을 위한 예산 국고 우선 지원('14. 2월, 600억) 등

교육비 부담 경감 (국정과제 29)

- ☐ (성과) 소득연계 대학 반값등록금 지원 확대 및 학자금 대출금리 지속 인하
 - ※ 대학 반값등록금 지원 : 34.0%('12) → 42.8%('13)
 - ※ 학자금 대출금리 : 3.9%('12) → 2.9%('13)
- ☐ (한계) 고교 무상교육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국정과제의 경우 국가재정 여건 상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
 - ※ 맞춤형 반값등록금 : (당초) '14년 완성 → (조정) '15년 완성
 - ※ 고교 무상교육 : (당초) '14년부터 단계적 시행 → (조정) '15년 이후 단계적 시행
- ☐ (개선방향) 고교 무상교육은 재원확보 및 근거 법률 마련
 - 선진 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 지속 추진

사교육 부담 경감 (국정과제 29)

- ☐ (성과) 다각적인 정책 지원으로 사교육비 부담은 감소 추세이며 사교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12, 34%)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도 감소
 - ※ 1인당 월 사교육비(만원) : 24.2('09) → 24.0('10) → 24.0('11) → 23.6('12)
 - ※ 영어 사교육비 및 참여율 : 7.2조원, 55%('09) → 6.5조원, 46.3%('12)
- ☐ (한계)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로 인한 학생·학부모 부담은 여전
- ☐ (개선방향) 사교육의 주요 유발 요인인 과도한 선행학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적극 추진
 - ※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13. 4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 국립대 공무원 직원에 대한 기성회 수당 폐지 등 선도적으로 비합리적 관행의 정상화 추진
- 국립대 공무원 직원 : 기성회회계 사용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중단('13. 9월)
 - 사립대 교직원 : 연금 대납 금지 및 대납금 보전 조치 마련('13. 11월)
 - 국립대 병원 : 직원 등의 진료비 감면 제도 개선('13. 7월)
- 현재 총 6개(교육부 주관 4개, 타부처 협업 2개) 과제를 추가로 발굴·선정하여 T/F 구성·운영 및 관련규정 마련 등 추진 중
- (예시) 수능이후 형식적 수업관행 개선(현재 T/F 팀 구성·운영), 교장임용제청 배제 기준 강화(규정 마련 중), 유치원 방과후 과정 비용 부담완화 등

☞ 교육부 등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이 솔선하여 정상화 적극 추진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 공공기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방침에 적극 부응하여 교육부문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으로도 확산 중

과제	주요 추진실적
산하 공공기관간 혁신의지 공유	산하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를 통해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촉구 ('14. 1. 27, 장관 주재 120명 참석)
이행계획 수립	- 중점관리 대상 기관 이행계획 수립 ('14. 1월) * 한국장학재단 : 대출 상환 관리 강화를 통해 재단체 발행 하향 * 부산대학교병원 : 1인당 복리후생비 20% 이상 감축 - 공공기관 외 산하기관의 정상화 이행계획 수립 ('14. 3월)

☞ 교육부 산하 21개 공공기관 및 그 외 기관에도 방만경영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본격적인 정상화 노력 경주

【고용률 70%】

-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 강화, 취업중심의 고용행태 변화를 위한
창업교육 기반 조성 및 선취업 후진학 기반 강화 등 역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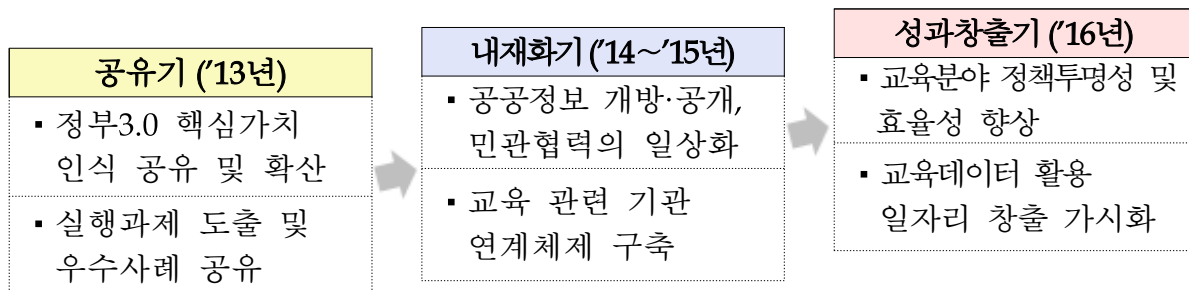
<주요 과제 및 추진 실적>

과제	주요 추진실적
대학·연구소의 창업기지화	· 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 발표('13. 9. 6, 미래부·중기청 합동) · '13년 산학연협력 EXPO 개최('13. 10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법률」 개정('12. 12월)
NCS 기반의 직무 능력 중심체제로 전환	· NCS 학습모듈 개발계획 수립('13. 6월), 착수('13. 9월) · 「자격기본법시행령」 개정완료('13. 10월) ·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로드맵 수립('13. 12월)
선취업후진학 지원확대	· 전문대학 육성방안 발표('13. 7. 18) ·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13. 5월) · 근무경력 학점인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13. 8월)

- ☞ 고용시장 미스매치 완화 등에 필수적인 직무능력 중심 교육 지속
추진 및 이에 따른 고용문화 개선을 위해 고용부 등과 협업 강화

【정부3.0】

- 정부3.0의 적극적 실천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교육부로 탈바꿈
- 교육부 정부3.0 자문위원회 구성·운영(3회), 산하기관 등 워크숍(5회),
정부 3.0day 운영(매월 30일, 3회), 부내 및 시·도교육청 평가와 연계 등
 - 시·도교육청 및 대학, 공공기관의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
- ※ “응답하라, 정부3.0-2013교육부(사례집)”, “실록3.0, 역사를 깨우다(영상)” 등 제작·보급



- ☞ 관련 부처·국민과의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교육정책 품질 제고 및
교육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한 만족도 제고 노력 지속

- ❖ 교육부문 국정과제 및 범부처 공통과제 등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애로점 극복 및 개선방안 강구
- ❖ 박근혜정부 1년차의 "교육정책을 통한 변화 가능성"을 토대로 2년차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비전 구현 본격화

□ 학교교육 정상화, 능력중심사회 기반 조성 과 교육기회 확충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애로점 내재

- △ 각 부처 및 관련기관 등과 협업과 소통 강화, △ 선제적인 정책 대응력 제고, △ 사회 전반의 교육관련 인식과 문화 개선, △ 국민 중심 정책추진 강화 등 추진 필요

□ 국정과제 중 일부 지연과제의 경우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성과 제고 필요

- 국민적 공감대 마련을 통한 대국회 설득 노력 강화, 관련 부처간 협의·조정 활동 확대 등 추진

※ 총 73개 세부과제중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 3개 세부과제는 국회 입법 상황 및 외부 정책환경 등으로 추진상 일부 지연

□ 교육부문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등 범정부 공통과제 추진을 위해 구축한 기반을 바탕으로 성과창출 본격화

- 기 발굴한 교육부문 비정상적 관행의 획기적 개선 및 추가과제의 지속적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 책무성 강화
- 정부3.0의 내재화를 통한 정책 품질 제고, 서비스 강화 및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체계 확충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비전 :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전략	중점과제
1 (꿈끼)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교육 내실화 ·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구축 ·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 교과서 개발체제 근본적 개선 · 통일 및 국토사랑 교육 강화 · 예술·체육·인문 교육 활성화 · 인성교육 강화 2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 · 사이버·언어폭력 해소 ·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 학부모 참여 활성화
2 (창조) 창조적 인재를 기르는 질 높은 대학	3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교육·연구 역량 강화 · 인문학 진흥 · 기초교양교육 강화 · 풀뿌리 연구 지원 확대 · 산학협력 강화 · 창업교육 활성화 · 지방대학 육성 4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대학체제 혁신 · 선제적 대학 구조개혁 · 학부·대학원 교육체제 개선 ·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 대학재정운영 투명성 제고
3 (도전)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능력 중심의 사회	5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과 직업교육 강화 ·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인프라 구축 · 직무능력중심 채용 확산 · 고졸 선취업 후진학 체제 정착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6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 ·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체제 구축 · 취약·소외계층 평생학습 중점지원 · 대안적 학위취득 제도의 질 관리 강화
4 (희망)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열린 기회의 나라	7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 사교육·입시부담 완화 · 소외계층 교육기회 확충 · 교육비 부담 완화 · 맞춤형 교육(장애·기초학력·영재) · 사교육 부담 경감(선행학습·영어·한국사) · 대입준비 부담 완화 8 글로벌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육한류 · 교육강국 발전경험 공유·확산 · 선진국과 교육협력 강화 · 유학생 유치 확대 · 재외 한국인 글로벌 인재 육성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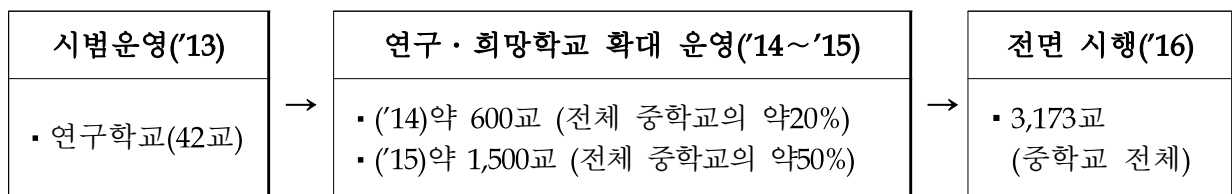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교육 내실화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 구축】

(국정과제 66-2, 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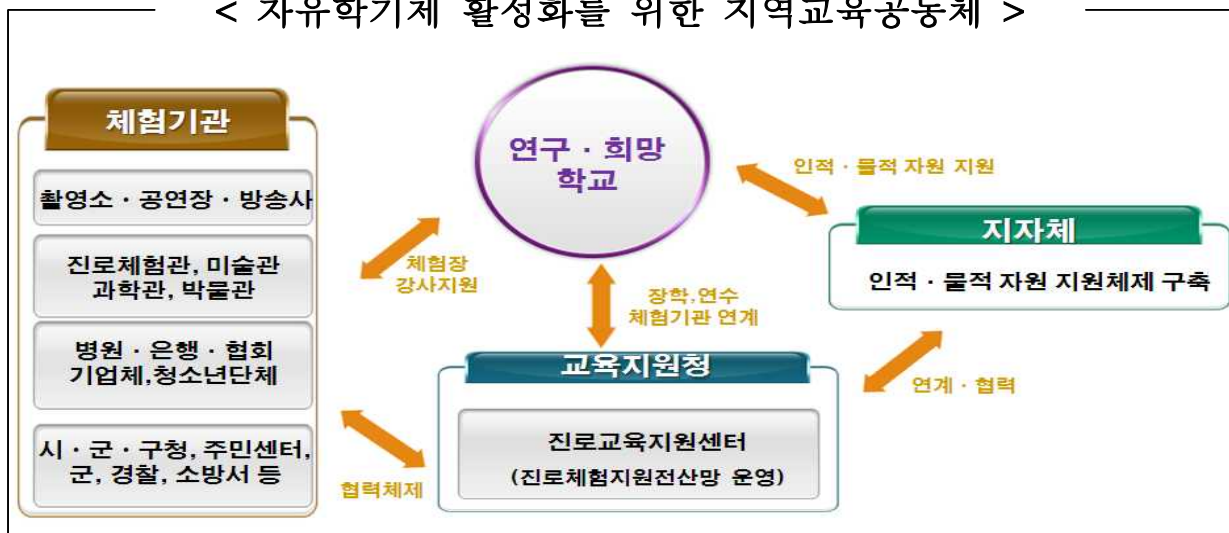
□ 학생의 꿈끼 실현을 돕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 구축

-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 확대 운영(약 600교)을 통해 다른 중학교로 성공사례 확산 추진



- 희망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및 전면 시행('16)에 대비하여, '교육지원청' 주도로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체제 구축

<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육공동체 >



- 자유학기 중 학생 참여수업, 동아리·진로탐색 활동 등을 일반 학기와 연계 운영하고, 자유학기제 운영 성과 비교연구 실시
- 학생의 자유학기 활동 내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중·고교 간 꿈·끼 교육활동 연계

□ 취약시기 수업 정상화를 위한 학기말 “꿈끼 탐색주간” 운영

- 모든 초·중·고에서 2월은 학업 및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각자의 꿈과 끼를 찾아보는 기간으로 운영

※ 자유학기제 운영모델을 활용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진로설계·탐색·체험 프로그램 운영(연간 교육계획에 반영)

- 고3 수능·중3 기말고사 이후 상급학교 적응지원 프로그램 및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고3·중3을 위한 전환기 진로교육, 직업소개, 독서·논술 등 진학지원 프로그램 등

<고3 수능 이후 교육 프로그램 구성(안)>

분야	교육 프로그램 예시
진학	· 독서·논술 프로그램 등 진학 지원 프로그램 · 의사소통, 대학탐방 등 대학생활준비 프로그램 등
취업	· 다양한 직업 소개 및 예비 직업인 생활 프로그램 등
교양· 사회인 준비	· 예술·체육·인문 등 교양 프로그램 · 예절·리더십, 메이크업 등 사회생활·성인준비 프로그램
봉사	· 청소년 봉사학교, 저학년 교육봉사, 어르신 찾아뵙기, 농어촌 봉사활동, 시각장애학생 책 읽어주기 등 각종 봉사프로그램

□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 온라인·모바일 등을 활용한 진로심리검사를 확대하고, 학교·지역진로교육센터의 상담 활동 내실화

※ 진로심리검사 결과 및 진로상담 정보는 모바일을 통해 학부모에게 제공

- 진로수업·검사 및 상담·진로체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보급 확대(연구학교 '13, 17교→ '14, 34교)

- 지자체, 청소년 수련관, 산업체 등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생생한 직업 체험기회를 제공

-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진로캠프” 및 “원격 화상 진로멘토링” 서비스 확대('13, 57교→ '14, 400교)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체제 근본적 개선】

□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는 새 교육과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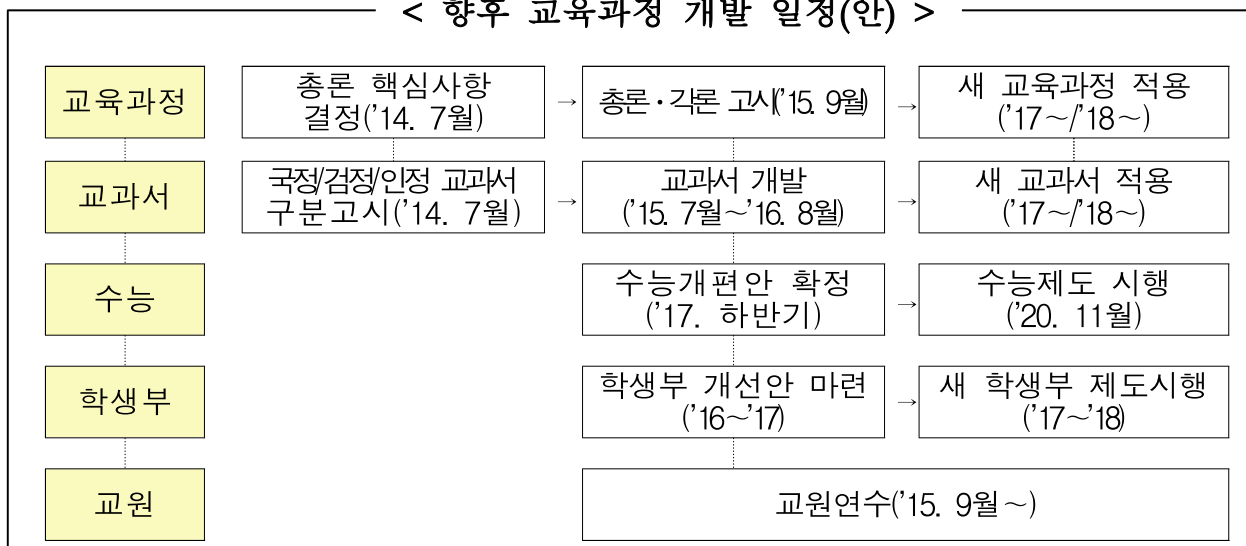
<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안) >

-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에 관한 기초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편성
-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위하여 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별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 등이 가능한 여건 조성
-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선택과목 또는 진로과정 개설 검토

○ 교육과정은 초·중등 학교교육의 기본 설계도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과서, 교원, 평가(학교생활기록부, 수학능력시험), 시설 등 교육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

< 향후 교육과정 개발 일정(안) >



- 전문가, 현장 교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 추진
- 현장 적합성이 높은 질 좋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협업체계 구축 및 현장교원의 참여 확대

□ 교육과정 개발과 연계하여 교과서 개발체제의 근본적 개선

- 교과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집필기준과 점정 기준을 마련하고, 최고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교육부 내 교과별 전담 전문직을 배치하고 교과별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과서 체제 개선 방안 검토
- 디지털교과서 시범적용의 성과분석 및 향후 추진방안 마련
 - ※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대상 사회·과학교과 시범적용('14.)
-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
 - 교육적 관점에서 공론화를 통해 국정 전환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교과서체제 개선 방안 검토
- 교과서 선정 시 학교의 자율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 강구('14. 8월)

【꿈끼 교육 강화】

(국정과제 66-2, 66-4)

□ 바른 인성·창의력을 길러주는 예술·체육·인문교육 활성화

- (예술) 학생들의 예술 소양 신장 및 소외 지역 학생들의 예술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단위학교 지원 확대 및 학생동아리 활성화
 - ※ 오케스트라(400교→985교), 뮤지컬(130교→180교), 연극·예술동아리(500교→930교) 등
- (체육)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 확대, 여학생 스포츠클럽 지원('14, 1000팀) 등을 통해 1학생 1스포츠 문화조성
 - ※ 타 부처 협조사항 : 문화체육관광부(학교스포츠클럽대회 공동운영 및 경기 시설·인력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승마프로그램 지원) 등
- (인문) 초·중·고교에서의 인문 가치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 인문학 동아리 등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 ※ 인문고전반, 향토사연구반, 동·서양 철학반 등 인문학 동아리 지원('14, 100개)
 - ※ 인문교육 선도 고교 34개교('14. 3월)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본격 지원

- 일반고 학생의 꿈·끼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다양화 추진**
※ 필수 이수단위 축소, 진로집중교육과정 운영, 직업진로교육 확대 등
- 학교별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 학교규모 등을 고려하여 모든 일반고 교당 평균 5천만원 지원('14, 603억)

【인성교육 강화】

(국정과제 66-1)

□ 학교 현장의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발굴 확산

- 학교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덕목을 선정**하여 학생이 공감하는 인성교육 추진(1학교-1학급-1덕목 실천운동 등 확산 권고)
※ 7대 덕목 : 정직, 책임, 존중, 배려, 공감, 소통, 협동
- 욕설 등 불량언어 사용이 순화될 수 있도록 **학생언어문화 개선 추진**
- “**창의·인성교육 박람회**”를 통해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민간단체, 타부처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신규과제 적극 발굴
※ 협업 기관 및 사업: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 인성학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나눔 공모전) 등
-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 표준안 및 교육자료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체계적인 성교육 추진**
※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한 내용 영역별 교육자료('14, 초 2종, 중 2종)
※ 수요자(학생·학부모·교사) 중심, 학교 성교육 실태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정례적인 조사체계(약 3년 주기) 개발('14. 6월)

□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 협력학습·토론중심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인성교육을 통합한 ‘인성교육 중심 수업’ 모델 확산**
※ 시·도교육청, 교과 연구회·교사 동아리, 교원단체, 언론사, 대학 등과 연계 추진
- **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 및 학교장·현장교원 등에 대한 **연수 추진**

【통일 · 안보 교육 및 국토사랑 프로젝트】

□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체계적 통일 · 안보교육 추진

- 한국사 등의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 보급을 확대하고 통일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중점적으로 교육
 - ※ 독일 통일의 교훈, 통일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 교과서 보완 자료 제작 · 보급
- 체험중심 통일 · 안보 교육 강화를 위해 유관부처(통일부 · 국방부 · 보훈처 등)와의 협업 추진
 - ※ 체험형 교육(예시) : (사전) 통일 · 안보 전문강사 강의 청취 및 영상물 시청 → (체험) 관련 현장 견학 → (사후) 글짓기 · 포스터 그리기 대회, 캠페인 등
- 독일과의 교원 교류확대 등으로 통일의 경험을 배우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 추진

□ 국토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국토 사랑 프로젝트” 추진

- 국토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연환경 정화활동, 농촌봉사활동, 문화·역사체험, 야영 등 다양한 경험도 하는 국토사랑 프로그램 운영
 - ※ 전국 · 지역별 국토탐방프로그램 및 관련 매뉴얼(학생 안전 등) 개발 보급 ('14. 9월)
- 가족애와 사제 간의 정을 느끼고 체험활동도 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하는 국토 대장정”, “사제동행 국토 탐방” 등의 프로그램 권장

< 사제동행 국토탐방 사례 : 대구 ○○중 >

- (일정 및 참가 인원) '13. 8. 12 ~ 14(2박 3일) / 학생 80명, 교사 22명
- (행진 코스) 경북 문경(문경새재), 충북 보은(화양동 등)
- (특징) 8년째 운영, 스승과 제자가 함께 걸으며 박물관 견학, 역사·문화체험 병행

- “국토 사랑 체험 공모전” 개최를 통하여 활성화 유도
 - 학교 수학여행 · 체험학습, 민간단체 청소년 활동 등에서 국토애 고취를 위해 운영한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포상

□ 독도영토주권의식 제고를 위한 우리땅 독도교육 강화

- 단위학교 독도 교육 내실화 도모를 위한 학교급 별 맞춤형 독도 교재 개발·보급('14, 초6, 중3, 고1)
- 독도영토주권의식 제고를 위한 학생 대상 체험 중심의 독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독도전시회' 개최('14, 4회), '독도과거대회' 개최, '독도지킴이학교' 운영 (초등 20교, 중등 35교, 해외 5교, 총 60교)
- 교원 대상 독도 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독도교육 전문성 신장
 - ※ 독도 관련 온라인 연수('14. 2~12, 연 4,000명), 울릉도·독도 탐방 연수 (총 200명), '독도교육실천연구회' 운영(17개 시·도교육청)

【미래 교육 모델 : 스마트교육】

(국정과제 66-3)

□ 첨단 ICT를 활용한 미래형 교육 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마련

- 스마트교육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5년 이후 추진방안 마련('14. 7월)
- 소규모학교 미개설 과목 이수 희망학생에게 온라인으로 관련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 사이버학습 콘텐츠, 방송통신고 e-스쿨 등 기 개발 콘텐츠 활용

1-2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국정과제 76)

□ 사이버·언어 폭력 맞춤형 대응 강화

- 학교단위 PC·스마트폰 기반의 익명 신고·상담시스템을 운영('14, 약 1,000교)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신고·상담 가능한 여건 마련
- 언어습관 자가진단,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폭력적인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언어습관 자가진단표(초·중·고/학생·학부모·교사용) 개발 및 활용 강화('14)

< (가칭) 방패말 프로젝트 : 나와 친구를 지키는 말 >

- (주요내용) 나를 괴롭히거나 친구를 놀리는 말들에 대하여 재치있게 받아 넘기는 구체적인 표현들을 훈련하여 학교폭력 예방
- (해외사례) 호주는 폭력 발생 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받아 넘기는 말 (Comebacks)'을 학교별로 개발·교육하여 피해 감소 및 학생 대화능력 향상
- (추진계획) 각종 폭력 대응 표현 개발('14. 상반기), 교사연수에 반영·확산

- 방송사, 민간 SNS 공급자와 함께 민·관합동의 비폭력적이고, 건전한 언어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폭력예방 서약 후 이모티콘 받기, '블루밴드' 캠페인 등

-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사이버·언어폭력 대책 마련('14. 상반기)

- 가·피해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도·보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14. 상반기)하고 거점 Wee센터 등을 활용한 지원 강화

※ Wee센터, 피해자 전담기관의 전문상담인력 연수 및 지역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연극·체험교육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확대

- 폭력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공감·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연극 교육 등 문화체험 및 학급단위의 체험형 예방교육 확대
 - ※ 연극활동 지원 : 연극강사(1,309교), 학생연극회(150교), 동아리(150교) 등 학교폭력관련 문화콘텐츠(연극, 뮤지컬 등) 제작·관람 지원('14, 약 28만명)
 - ※ 체험형 예방교육(어울림 프로그램) 지원학교 확대 : 300교('13) → 500교('14)
-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 확대 운영('13, 1,000교→ '14, 3,000교)으로 학교 자율적 예방활동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 체험중심의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인식 및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스스로를 보호

<청소년 경찰학교>

- (주요내용) 방과후, 창의체험 활동, 방학 등을 활용하여 경찰서에 설치된 체험장에서 준법 의식 및 학생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 제고
 - ※ 경찰 역할·사이버수사·과학수사·경범죄 단속 체험, 학교폭력 역할극, 또래상담 기법 등
- (추진계획) 거점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14, 20개),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경찰학교' 지원(총 2,000회 목표)

-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 범국민 실천운동 지속 전개
 - ※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 지원 사업'(20개 기초 지자체) 등

□ 위기학생 맞춤형 상담 및 치료 지원 강화

- 돌봄(주거), 상담, 교육기능이 복합된 '가정형 Wee센터' 등 Wee 프로젝트를 지속 확대하고 운영 내실화 지원
 - ※ Wee센터 : 171개('13) → 199개('14) / 가정형 Wee센터 : 4개('13) → 8개('14)
 - ※ Wee스쿨 : 7개('13) → 10개('14) → 17개('15)

<가정형 Wee센터 사례(대전)>

- (주요내용) 학교폭력, 가정폭력 가해·피해 등 학교부적응 학생 20여명에게 보호·돌봄·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기숙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 (운영효과) 입소학생의 85%가 안정적으로 가정에 복귀하고, 상급학교에 진학

- 학생정서특성검사를 학년초(5월)에 실시하여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및 우선관리군 학생 상담의무화(연5회 이상) 등 전문적 치료지원
 - ※ 전문기관(Wee 센터, 병·의원) 연계율 : 50%('13) → 55%('14) → 60%('15)
 - ※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운영 시·도교육청 : 6개('13) → 12개('14) → 전체('15)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 위기사건 지원,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소아정신과 전문의 상시 상담 등 실시

□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

- ‘학생안전지역(Student Safety Zone)’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및 관련 법률 제정 추진
 - ※ 시범운영('14. 3월~) 및 (가칭)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4. 8월)
- 학교내 고화소 CCTV(100만 화소 이상)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자('14, 노인일자리사업 1만명)를 활용하여 상시관제 실시
 - ※ 고화소 CCTV 비율(% , 전체대수) : 10%, 14만대('13) → 14%, 15만대('14)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CCTV 상시관제 사업 우수사례>

- (주요 내용) 남양주시 시니어클럽 “명품실버갑” 사업단 소속 어르신들이 관내 초등학교에서 CCTV 모니터링 활동 실시
- (사업 효과) 어르신들의 보람있고 활기찬 생활 유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도움

- 학교폭력, 성폭력 등 위급상황 시 112 긴급신고 및 보호자에게 즉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U-안심알리미” 서비스 본격 추진

<U-안심알리미 서비스>

- (주요 기능) 특수 단말기를 이용하여 112 긴급신고 및 보호자 긴급호출·위치전송, 긴급통화, 안심지역 설정·위치정보 제공
- (지원 계획)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초등학교 자녀 중 스마트폰·핸드폰 미보유 학생에게 단말기 및 이용료 지원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학교급식 안전점검 민간참여제 도입 및 위생관리 컨설팅을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 급식시설 현대화 목표 : 70%('13) → 85%('14) → 100%('15)

- **어린이통학차량 및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지속 추진**, 학교내 안전 기준 강화로 **안전사고 위험요인 사전예방 조치**

※ 범부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지속추진('13. 5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국정과제 69)

□ 수업과 생활지도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 전념여건 조성

- 학생수 감소추세, 교육과정 및 OECD 국가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과 연계한 **'15~'25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마련**

※ 수급계획에 따른 '15학년도 교원 정원 확보 추진

- **여성교원의 경력단절 없는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과정 다양화**에 따른 적절한 수업제공을 위해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 학교 현장, 교원단체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신규채용 추진

※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14. 9월),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 선발('14. 12월)

- **교무행정인력 배치의 효율화** 추진, 학교의 교원행정업무 컨설팅 지원, **학교교육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상승(KEDI) : 2.54('11) → 2.79('12) → 2.85('13)

□ 교원의 역량계발을 위한 연수 강화

- 수업·생활지도 역량 강화 및 학교 현장 조기 적응을 위한 **“신규 교사 역량 강화 집중연수제”** 마련(방학 중 집중연수)

- 국가 핵심교육정책 체득, 리더십 배양 등을 위해 **“교장·교감 연수과정” 운영** ('14, 초·중등·특수학교 교장·교감 각 1,000명)

※ 교장·교감 연수 시에는 진로·직업교육 비중 확대

□ 전문성 신장을 위한 양성·임용체제 개선 연구

- 교원자격기준(무시험자격점정기준 등), 교원 양성 교육과정, 임용제도 개선 등에 대한 종합 연구 실시('14. 하반기)
 - 교사·학부모·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교직원발전자문단'과의 협업을 통해 방안 마련
- 수업과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도록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근무성적평정·성과급 평가)의 시기·지표 조정 및 연구시범학교 확대
 - ※ 연구시범학교 수 : 18교('13)→ 67교('14)
- 학생 대상 성범죄 관련 교원의 교단 배제 및 기타 성비위 관련 교원 징계 강화 추진
 -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경우 교원자격 박탈 검토

□ 교원의 사기진작 및 꿈끼 발현기회 확대

- (가칭) “교원 마음건강보호제”를 도입하고, 공공·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희망교사에게 치유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우수 교수·학습사례 공유, 각종 대회(음악·미술·서예) 및 포상 등을 통해 교원 꿈·끼가 학생 꿈·끼 실현의 디딤돌이 되는 기제 마련
- 전 국민 은사 찾아뵙기 운동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와 사회 전반의 스승존경 풍토 조성
 - ※ 스승의 날(달)을 학생·학부모 주도의 학교·지역사회 전체 축제로 승화

【학부모 참여 활성화】

□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 초·중등 교육정책 추진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복 교육정책 학부모 모니터단 참여기회 확대

○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및 전용 온라인 교육 확대**

※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 약 40만명('13) → 약 45만명('14)

※ 온라인 교육은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대 운영('14, 6개 과정 개설)

○ **학부모회 활동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

- 학부모회 중심의 자원봉사와 학부모 교육 지원('14, 1,000개 · 20억원)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 지역위원 대상 홍보 · 연수 강화

【교육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정보시스템 안전성 강화**

○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강화 및 보안서버 확충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에듀파인, 국가장학금,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 **정기적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유출 예방 활동을 강화 하여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금지, 위탁업체 관리 · 감독, 개인정보 파기 여부 및 접근권한 관리 등 중점점검 및 개선조치

□ **정보보호 우수인재(White Hacker : 해킹방지전문가) 발굴·육성**

○ **초·중등학생 대상 정보보호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우수인재(White Hacker)로 양성하는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을 대학 부설로 설치·운영**

※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4개 권역에 나누어 설치

2-1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대학 교육·연구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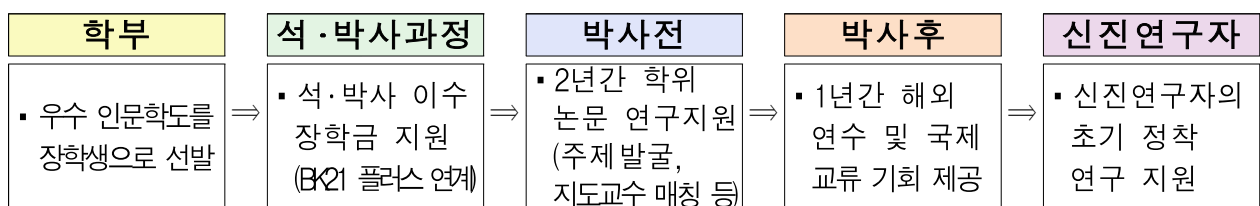
【인문학·폴뿌리 연구지원】

(국정과제 113)

□ 창조·행복의 기반이 되는 인문학 연구 진흥

- 인문학 분야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고사·고대사 등 신생·소외학문분야를 별도 지원하여 인문학 연구 지원 확대

< (가칭)“인문학 후속세대 육성 체제” >



- 저술 및 콘텐츠 등 다양한 연구결과물이 인문사회 분야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반 구축

※ 연구결과 평가 시 콘텐츠 개발·DB 구축 및 사업화 실적을 성과로 인정

※ 연구 신청시 저술의 업적인정 비율 확대 : 저술 1편-논문 2편('13) → 저술 1편-논문 3편('14)

- 융합 기반의 인문학분야 전략적 국책연구를 개발·지원하고, ICT 를 활용하여 인문학 디지털 콘텐츠 개발

※ (예시) “김치”와 관련된 주제를 제시하고, 김치의 역사(인문학), 김치의 효능(의약·생물), 김치의 세계화(사회과학)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 “제3회 세계인문학포럼('14. 10월, 대전)”을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인문학 선진국으로 자리매김(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협업)

□ 인문학 대중화 및 성과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대학·지자체가 연계한 인문도시를 확대('13, 5개→'14, 15개) 하고, 소외계층 및 공무원 대상 인문학 대중화 사업 추진

※ (희망·행복 인문학) 저소득층 청소년 및 소외지역 대상 인문학 독서·강좌 지원 (찾아가는 한국학 아카데미) 세종시 이전 공무원 등 대상 인문학 강좌 개발·운영

- 대학이 기업·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인문학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인문브릿지(Human Bridge) 사업” 신설

- 인문지식을 웹툰·소설 등 이야기산업(Storytelling Industry)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인문 소재 제공(교육부) → 콘텐츠 제작 및 산업화(교육부, 문체부) → 보급(교육부, 문체부)

□ 인성·융복합적 창의성 개발을 위한 기초교양교육 강화

- 인문학 연구 성과 등을 바탕으로 기초교양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원 역량제고 연수 등 대학별 인프라 구축 지원

※ 대교협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기능 강화('14, 10억원)

-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ACE)과 연계하여, 기초교양교육 선도 모델 발굴·확산

※ '14년에 10교 내외를 신규 선정(기존 14교는 계속 지원)하고, 대학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수-학습법 개발 등 총체적 개선 유도

□ 창의적 아이디어 지원 등 풀뿌리 연구 활성화

-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의 과제선정률을 45% 수준까지 높이고 소규모과제는 포괄지원(Grant) 방식으로 전환 확대

- (이공분야) 실험적·혁신적 아이디어 초기연구 지원 추진

※ 한국형 SGER(Small Grant for Exploratory Research) 시범운영(50개 과제, 125억원)

- 대학생, 석·박사, 박사후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기술사업화 지원

- (학문후속세대 육성) BK21플러스 사업을 통해 석·박사생 연구 여건을 조성하고, 박사후 연구자 및 시간강사 연구 지원 확대

※ 매년 석·박사생 약 2만명에게 연구장학금 지급

※ 박사후연구자 및 시간강사 연구지원 : 762억원('13) → 832억원('14)

- (기반 조성) 질·내용 중심으로 학술지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연구 정보 공유시스템(연구자 정보 - 연구성과물 정보 - 학술지 정보)간 연계 확대

【산학협력 · 창업교육 활성화】

(국정과제 15-2, 17-1, 71-5, 103)

□ 학업과 창업이 병행 가능한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13. 9월)의 후속조치로 창업휴학제, 창업학점 교류제 등 도입
 - ※ 창업휴학제 도입 대학 : 15교(’13) → 70교(’14)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창업 대학생 까지 확대·지원(’15~)하여 대학생의 창업도전 지원
- 창업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업강좌 정착을 위한 현장 컨설팅 실시
 - ※ 창업교육 교재 3종 개발 및 창업교육 컨설팅 분기별 실시
- 사이버창업강좌 공용플랫폼 마련을 통해 창업교육 수강기회를 확대하고 학점 취득 지원(~’15)

□ 도전정신을 고취하는 창업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SNS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업마인드를 확산하고, 우수 대학생에 창업학자금(10개팀, 총 1억원) 지원
- 중기청과 협업하여 창업교육 지표를 개발(’14. 10월)하고, 창업교육 우수대학 선정·지원(5교 내외)
- 대학 적립금을 활용한 학생 벤처창업기업 투자 유도
 - ※ 적립금의 10% 범위 내에서 학생·교원의 벤처기업 투자 적극 유도
- 국내·외 청년창업가 초청 ‘길없는 길, 나의 길’ 콘서트 개최, 청년 창업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 학생 창업지원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모형(ESG)”에 포함시켜 기업의 학생창업 지원 유도(’14. 10월)
 -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평가부문 중 사회영역에 ‘대학창업교육지원’을 추가

□ 세계로 진출하는 대학생 지원

- “세계로 프로젝트”, “글로벌 현장학습”, 대학생 중기 해외봉사 파견 등 대학생·전문대생의 해외 진출 및 취업 지원

※ 세계로 프로젝트 신규추진으로 대학·전문대학의 25개 사업단 지원

- 스위스, 독일 등 선진국과 직업·창업교육 상호 교류 시작

※ 한국-스위스 MOU 체결('14. 1. 20), 한국-독일 MOU 체결예정

□ 대학생들의 캡스톤디자인 작품 등을 거래하는 경매식 시장 (CAM(感) : Capstone design Auction Market) 조성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통해 개발한 시제품 수준의 작품과 아이디어를 지역 중소기업 등에 이전하는 경매식 거래시장 운영

- 현장실습시 발견한 지역기업의 애로사항 해결형 또는 문제해결형 캡스톤 디자인 작품 활성화

※ 산학협력엑스포 기간 중 (가칭) “캡스톤옥션, 캡스톤장터” 운영

- 학생들이 스펙에 연연하지 않고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여 실패의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현장 의견 >

- (학생) 기존 안구마우스 한계를 보완하여 장애인용 볼터치마우스 개발·시판하였는데 장애인들이 우리가 개발한 제품을 사용할 때 가장 행복 (○○대 4학년)
- (대학) 학생 아이디어 제품들이 시제품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지역산업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특허 출원 등 적극 지원 (○○대 산학협력단장)
- (기업) 학생들 작품 수준이 놀라우며, 기술이전 후 추가 기술개발까지 지속·적극적으로 산학협력할 것임 (○○중소기업 임원)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2단계 사업 본격 추진

- 1단계 사업을 토대로 캡스톤 디자인, 전문트랙·연계전공 등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확대

※ 사업규모: 1,700억원('12)→2,460억원(추경276억원 포함, '13)→2,403억원('14)

※ 캡스톤 디자인 : 산업계가 요구하는 시제품 수준의 작품을 학생들이 전공지식을 종합하고 직접 설계·제작하여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협업 및 실무능력을 육성하는 교과목

※ 산업체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수 : 1,360건('14) →1,518건('15) →1,678건('16)

- 중소기업과 인력교류형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추진 및 대학교원이 방학·연구년을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 애로 지원

< 산학협력 선도대학 우수사례(○○대) >

- (주요 내용) 디자인·공학·인문 융합교육과정,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새로운 대학 창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운영 효과) 다양한 전공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협력하여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며, 기업가 정신과 기술창업 능력 배양
- ※ 학생들이 '방송 영상내 물체인식 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추진('13. 10월)

- 대학이 보유한 기술·아이디어 등의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여 고용 창출까지 연계되는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

※ '14년 LINC사업 '기술혁신형' 대학 5교 내외 기술사업화 집중 지원(총 50억원 내외)

- 대학의 교육역량, 지식재산·아이디어와 기업의 교육·기술 수요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매칭하는 “산학협력 중개센터” 구축·운영

※ “산학협력종합지원센터”(uicc.re.kr)에 구축, 번리사 중개·알선 및 사업화 지원

□ 현장적합성 높은 엔지니어 육성을 위한 공학교육 혁신

- 이론 위주의 공학 교육·연구에서 현장형 교육, 실용적 연구로 전환하는 공과대학 혁신방안 마련(미래부·산업부와 협업, '14. 3월)

- 공학교육과 기업인재 수요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및 공학교육페스티벌 개최로 혁신성과 공유

- 대학교원의 업적평가에 산학협력 실적반영을 강화하고, 산업체의 적극적인 지원·참여를 통한 현장실습·실험실습 내실화
- 공과대학의 학부교육에 대한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를 확대하고 대학원은 생명공학 분야부터 '산업계 요구분석' 시범 실시
- 공학분야 BK21플러스 평가지표는 논문 중심의 양적 성과 경쟁에서 벗어나 특허·기술이전·창업 등 엔지니어 정신 중심으로 개선
 - ※ '15년 중간평가에 사용할 지표 개선(∼'14. 6월)

□ 산학협력단의 산업체 맞춤형 교육·연구 및 기술사업화 지원 강화

- 경제단체와 '산학협력 창조 네트워크' 조성으로 지역 기업, 대학의 정기적 만남과 정보 공유, 산학협력 아이템 발굴 지원
 - ※ 지역 산업체와 산학협력단이 상호 방문하고 면담하는 '산학터치 투어' 실시
- 산학협력단의 기술사업화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 ※ 산학협력단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근거 마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4. 7월 시행)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육성】

(국정과제 103)

□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 있고 매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 지역인재전형 도입, 공무원·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장학금 확대로 지역 우수인재의 유입과 취업 등 진로기회 확대
 - ※ “지역인재 유입-대학 경쟁력 강화-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제 구축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13. 12월) 및 시행('14. 7월)
- “지방대 특성화 사업”을 구조개혁과 연계하여 체질 개선
 -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 육성 및 우수 특성화 학과 집중 지원
 -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기존사업 전면개편) : 1,437억원('13) → 2,031억원('14)
 - ※ 지원분야(예시)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신산업분야, 지역협력산업 분야 등
 - 창조경제 근간인 인문소양과 문화융성 특성화 분야 별도 지원
 - ※ 특성화 사업비의 25%(460억원)를 인문, 사회, 기초과학, 예체능 등에 지원

2-2 미래 사회를 대비한 대학체제 혁신

【선제적 대학 구조개혁】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 체계적 대학 입학정원 감축

- '23학년도까지 16만명, '17학년도까지 4만명(대학 25,300명, 전문대 14,700명) 감축
-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자율적 정원감축 병행('14~)

□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 마련

- 모든 대학을 평가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고 정원감축(최우수등급 대학 제외) 등 차등적 구조개혁 시행
- 교육과정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정량·정성평가 병행('14.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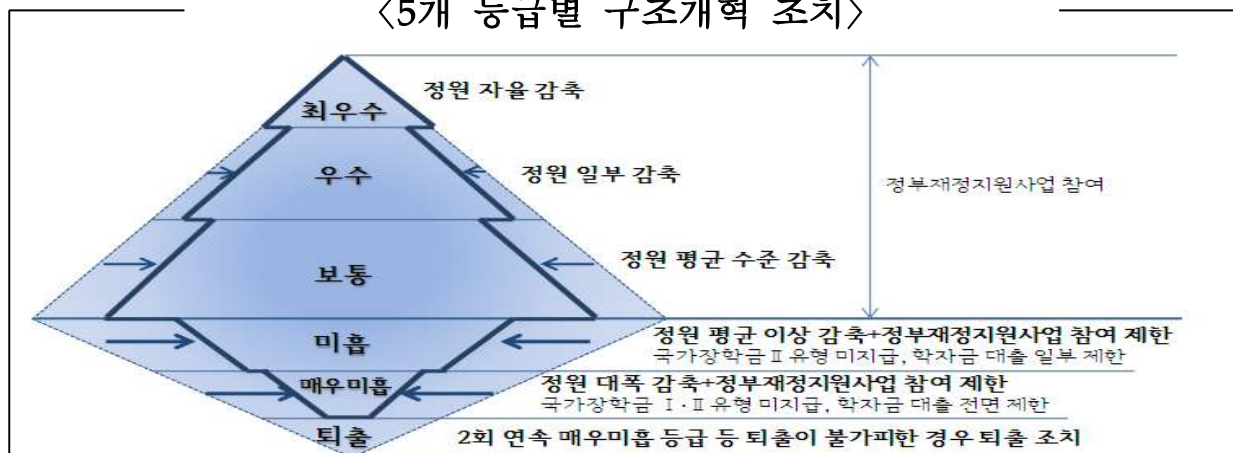
※ 평가지표는 공통지표와 특성화지표로 구성하되, 대학/전문대 평가지표는 별도 설정

□ (가칭)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평가체제 도입, 구조개혁 조치, 자발적 퇴출 경로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정원감축,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 인수합병, 잔여재산 귀속 특례 인정 등 포함

〈5개 등급별 구조개혁 조치〉



【학부·대학원 교육체제 개선】

(국정과제 68)

□ 잘 가르치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학부교육체제 구축

- 대학 내 교수학습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교원의 교수 역량을 높이고, 산업계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지원

※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개편 활성화 유도

- 교원 신규임용 등에서 산업체 등의 근무경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 친화형 교육 활성화

- 학사 운영 전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배포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 체제 구축 유도

※ 수업·성적 및 교육과정 운영 등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14. 6월 배포)

□ 대학원 경쟁력 강화 및 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 대학원 교육·연구의 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 공시를 확대하여 대학원 수요자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

※ 연구 윤리 규정, 학과(전공) 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 현황, 학업전념 및 직장 병행 학생 비율, 연구(전담)교원 현황, 대학원생 연구실적 등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확대 적용하고, 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강화

※ 대학원대학 우선 적용('14) 후, 일반대학 대학원에 확대 적용('15~)

※ 부정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근거를 박사에서 학사·석사까지 확대

- 학과(전공) 신설 시 전임교원강의비율을 높이고, 대학원대학 설립 기준을 강화하여 대학원 교육과정의 질과 안정성 제고

※ (현행)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60% 이상 → (개선) 일반·전문대학원 석·박사과정 75%이상, 특수대학원 55%이상

※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기준 : (현행) 40억원 → (개선) 100억원

【재정지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국정과제 68)

□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및 효율적 재정 운영 지원

-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규모를 '17년까지 GDP 대비 1%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 재정지원 목표(GDP 대비 %) : 0.86('13) → 0.90('14) → 0.94('15) → 0.97('16) → 1.0('17)

- 재정지원사업 평가항목을 분석·조정하여, 각각의 재정지원사업이 고등교육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개선

※ 추진일정 : 정책연구('14) → 사업별 평가항목 분석 및 개선권고 추진('15~)

□ 대학 운영의 효율성·책무성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고,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모든 사립대학으로 확대

※ 외부회계감사 대상 : (기존) 입학정원 1,000명 이상 사립대학 → (변경) 모든 사립대학

-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14년 100억)을 통해 국립대학 성과목표 달성도 및 발전전략을 평가하여 국립대학의 성과 극대화

-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책무성 등을 높이고 기성회비 징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 추진

※ 주요 내용 :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 대학별 재정위원회 설치·운영, 예·결산 공개 의무화 등

- 각종 업무(인사, 급여, 시설관리 등)와 회계를 원스톱으로 연계 처리하는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14, 40억원)

※ 개발 일정 : 응용 SW개발('14~'15) → 시범운영('16) → 전면 확산('17~)

3-1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과 직업교육 강화

【능력중심 사회 구현 선도】

(국정과제 73)

□ 학력을 대체하는 능력인정체계 마련 및 확산

- 청소년이 선호하는 10개 분야를 선정하여 산업계와 범 부처 협업으로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시범사업 추진
 - ※ (10대 분야) 헤어디자인, 패션디자인, 요리, S/W 개발, 자동차정비, 게임 개발 등
- 산업별·업종별 협회와 학교가 “직무능력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하겠다”는 공동 인재양성 협약 체결
- 산업계가 개발한 능력인정체계를 토대로 학력과 대응하는 준거틀인 국가역량체계(NQF) 개발('17년까지 완성)
 - ※ 능력인정체계 마련('14~'15) →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역량체계 구축('16~'17)

□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기반 구축

- 기업에 제공하는 특성화고·전문대학 등의 성적표기 방식을 학생의 직무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개선
 - ※ (기존) 단순 등급제(A, B, C, D, E 등) → (변경) 직무능력과 성취수준 등 제시

< 직무능력 성취수준 표기 예시 >

- 수행과제 : 자동차 냉각수 센서 점검
 - 실습차종 : 00 자동차
 - 수행내용 : 냉각수 센서 점검, 커넥터 점검, 테스트램프 활용 등
 - 평가 : 다른 사람 지도 없이 냉각수 센서의 고장원인을 파악하여 능숙하게 고칠 수 있음

□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

- 학력·연공서열보다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형성을 위한 범정부적 캠페인 연중 실시
- 학교(특성화고, 전문대학 등)와 기업(대기업, 우수 중견기업 등)이 함께하는 "NCS/NQF 박람회"를 개최('14. 8월)하여 모범사례 발굴·공유

□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인프라 구축

- 특성화고·전문대학 등의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모듈 개발 확대

※ 연도별 학습모듈 개발 수 : 55개('13) → 195개('14) → 527개('15)

- 학교 현장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운영·평가를 위한 교원 연수 실시

※ 연수 기본계획 수립('14. 4월) → 연수기관 선정('14. 5월) → 연수 실시('14. 7월~)

【선취업 후진학 체제 정착】

(국정과제 70)

□ 마이스터고 활성화

-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지속 개편하고 학교-기업 간 협력 체제 내실화

- 독일·스위스 등 유럽의 기업중심 직업교육의 장점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마이스터고 모델 확산

※ 마이스터고-독일 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확대를 통해 마이스터고 모델 지속 보완

- 소프트웨어·식품 등 다양한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5교)

※ 마이스터고 수 : 39교('13) → 44교('14)

□ 고졸 취업의 지속 확대를 위한 기반 강화

- 현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 중심으로 개편

※ 교육과정 개편 일정 : ('14.) 총론개정 → ('15.) 각론개정 → ('16) 전면적용

- 마이스터고의 100% 취업연계형 맞춤형 교육과정 지속 확대를 위해 참여기업 세액공제 추진 등 기업의 직업교육 참여 유도

※ 100%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 기업과 학교가 취업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이수자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과정수 : '13, 199개 → '14, 230개)

○ **관계부처·산업계의 지원을 토대로 특성화고 육성 및 취업연계**

※ 중소기업청 지원 사례 : 특성화고-중소기업 간 취업맞춤반 운영 지원, 현장 실습 및 취업연계, 참여기업에 병역특례 우선 추천 혜택 제공

※ 부처 연계 특성화고 신설 분야('14) : 관광(문화체육관광부), 공간정보(국토교통부), FTA(관세청)

○ **공공·민간부문의 고졸 적합직무를 지속 발굴하여 고졸 채용 확대 추진 및 1:1 취업매칭 시스템(고졸 시대 포털사이트) 구축('14. 2월)**

※ 고졸 취업자 친화적인 노사문화 조성 캠페인 실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자 거주 및 생활여건 개선 방안 마련 등

※ (한국남동발전 사례) 발전운전 분야의 복합현장운전직무 등을 고졸적합직무로 도출, 직무능력평가제를 통해 채용·4년 후 대졸자 직급으로 승진 계획

○ **고졸취업 지원 인프라 강화 및 고졸취업 문화확산 노력 지속**

< 인프라 및 문화 확산(예시) >

- (인프라)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단위학교 취업역량강화사업,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관 제도 등
- (문화) KBS 스카우트 제작 지원(중소기업청 협업), 고졸취업 박람회 등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교육 지원 체제 확충】

(국정과제 70-5)

□ **재직자의 후진학 및 경력개발 기회 확대**

○ **재직자 특별전형 학과를 확대 개설하고 자격부여를 일반고 출신 취업자까지 확대하는 등 고졸 재직자 계속교육 경로 다양화**

※ 고용부, '일·학습 병행제도' 와 연계하여 계약학과, 사내대학 등 확대 및 학사제도 개편 추진

※ 후진학제도 현황 : 계약학과(109교), 재직자특별전형(70교), 위탁교육(68교) 등 ('13. 기준)

○ **산업현장(중소기업) 기술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고졸 기능·기술인재를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

- 고졸 전문학사·학사(국내) 취득자에게 국외 석·박사 취득 및 연수 기회 부여

- 평생학습중심대학 중 분야별 강점이 있는 대학 등을 현장수요 맞춤형 후진학 거점대학으로 지정·운영(총 10교)
※ 전문·희소계열(농업, 마사 등 4개 분야) 대표 대학 및 방송대와 연계 추진
-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교육·훈련하는 시스템 활성화

□ 재직자의 일과 학업 병행 지원 인프라 강화

- 방송대 스마트 후진학 학부 신설(2개 학부 4개 전공, 2,000명 정원) 및 '후진학 허브(Hub)대학' 운영 등 온·오프라인 후진학 기회 제공
※ 허브대학 : 협력대학과 후진학 콘텐츠 공동 개발·활용 및 학점교류 등
- 산업체 근무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고졸 취업자 학업부담 경감 및 원활한 학위 취득 유도
※ 학점 인정은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에 한함
- 기업 인식개선 및 후진학 장려 풍토조성을 위해 고용부, 중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국정과제 71)

□ 현장 중심의 핵심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 백화점식 학사구조를 강점 있는 한개 또는 두개 계열로 집중화 하여 특정산업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취업률 목표 : '13, 61%→'17, 80%)

<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14) : 총 70교, 2,696억원 지원
 - 단일분야(1개 계열 70% 정원집중) 특성화 : 19교
 - 복합분야(2개 계열 70% 정원집중) 특성화 : 43교
 - 우수 프로그램 특성화 : 8교

□ 미래형 고등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 재직자·퇴직자 등의 직업교육 수요 및 산업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융복합 기술교육과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사운영
 - 기술발전, 저출산·고령화 등 산업인력 구조변화에 따른 최신 직업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성인중심 비학위 교육과정 운영
- ※ 재직자 등 성인 중심 실무형 비학위·학위 통합과정 운영('14, 8교)

□ 고숙련 기술의 국가자산화를 위한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립·운영

- 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 마이스터고 졸업자 등 전문기술인력 대상 고숙련 기술교육 제공
 - 숙련기술인들이 보유한 암묵지를 체계화한 '명장기술서'를 통해 산업기술명장의 기술과 지식을 국가적 차원으로 계승 발전
- ※ 명장기술서(MTR : Master Technical Report, 技術書) : 숙련기술보유자들이 경험을 통해 습득한 암묵지 형태의 지식을 형식지로 전환하는 것

3-2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국정과제 72)

□ 국가 단위 온라인 평생학습체제 구축

-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단위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서비스망’ 개통·운영(’14. 11월)
 - ※ 유관기관 협력망 구축, 지역·대상별로 산재한 학습정보 및 콘텐츠의 공동 활용·개발
- 양질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한국형 K-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플랫폼 구축·운영 기본계획 수립
 - ※ 기본계획 수립(’14) → 플랫폼 구축 추진(’15) → 서비스 안정화(’16) → 해외 연계(’17)
 - ※ ’14년도 개통하는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서비스망’과 연동 운영
- 공개강의서비스(KOCW), 대학·기업·일반전문가 강의 등과 연계하여 국민 수요에 맞춘 양질의 콘텐츠 제공
 - ※ KOCW(Korea Open CourseWare)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운영(’10~)
 - ※ ACE(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 교육기부 등과 연계하여 양질의 콘텐츠 확보
- 일반인과 대학생이 K-MOOC 이수시 학습 실적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학칙 개정 유도 및 학점은행제 연계 검토

<대학·평생교육 온라인 강의 운영 현황>

- KOCW : 동영상 강의 7천개와 강의자료 22만개 공개, 연간 200만명 활용
- 대학 이러닝지원센터(10개) : 1,700여개 온라인 강좌 운영(재학생, 군복무자 활용)
- 방송대 공개교육자료(OER) : ’13년 66개 콘텐츠 개발, 협력기관 콘텐츠 공유(1,095편)
- 원격 기반 대학·평생교육 : 사이버 대학 19교, 대학의 70% 원격교육 운영,

학점은행제 114개 원격교육훈련기관

□ 현장 밀착 오프라인 평생학습 지원 강화

-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평생학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13. 84개 → ‘14. 180개) 운영·확대 추진
※ 행복학습센터 설치 시·군·구 : 16개(‘13) → 60개(‘14) → 152개(‘15) → 227개(‘16)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시·도), 평생학습도시(시·군·구), 행복학습센터(읍·면·동)로 이어지는 촘촘한 국가평생학습체제 완성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10개, 평생학습도시 118개 운영 중

□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중점 지원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등 인생 2·3모작을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 지원사업 선정 시 경력단절 여성 및 은퇴자 대상 사업 비중을 평가지표에 반영

<경력단절 여성 지원 사례 : 영등포구청>

-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기업(효성 ITX) 및 직업훈련시설(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과 협약을 맺고 고객상담직 양성 과정 운영
※ (구청) 기획·홍보·평가, (센터) 접수·강좌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 (기업) 전문강의 및 취업연계

- 평생학습중심대학 선정 시 비학위 과정에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 대상의 전문가 과정 개설 여부 등을 평가
- 저학력·비문해 성인 및 매년 증가하는 신문해 수요계층(다문화가정, 탈북주민 등)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기관 지원현황 : 16,334명(‘12, 19억원) → 19,745명(‘13, 25억원) → 22,000명(‘14, 28억원)

【대안적 학위취득제도의 질 관리 강화】

□ 대안적 교육기관의 책무성 강화

- 학점은행기관에 대한 대학 수준의 정보공시제 도입 및 부실운영 기관에 대한 평가인정 신청제한, 운영중지 등 행정조치 강화
 - 학습과정, 교원 등 기준에 대한 평가 및 운영실태 점검 강화(117개 기관)
 - ※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유효기간 차등(1~5년) 부여
- 사이버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를 위한 평가체제를 마련하고 설립 인가 기준 강화 및 정성평가 실시 등 엄격한 설립 심사 추진
 - ※ 평가결과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정원 감축 등과 연계

□ 학점은행제 운영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

- 일자리와 연계되는 분야의 교육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개편
 - ※ 상담학, 신재생에너지 등 2개 분야 교육과정 시범 개발·운영('14.)
- 교육·연구 경력이 없더라도 현장실무경력만으로 학점은행기관의 교·강사가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 변경('14)
- 소프트웨어 산업 등 긴급한 수요가 있는 분야의 교육·훈련기관은 학점은행기관으로 인정받는데 소요되는 기간 단축
 - ※ (기존) 3년 → (변경) 1년 6월 ('14. 3월)

4-1 고른 교육기회 보장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

(국정과제 51-2, 52, 126-1)

□ ICT를 활용한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 '15년까지 모든 농어촌 초·중학교(분교 포함)에 ICT 인프라를 보급하여 예술·체육·인문(역사)·진로 등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제공
※ ICT 지원학교 : 300교('13) → 2,000교('14) → 4,000교('15)
- 1군별 1우수중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교육 여건 구축('14, 250억원 지원)
※ 우수중학교 : 20교('13) → 50교('14) → 80교('15)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 강화

- 학업중단 위기 학생(4만명)에게 숙려기간 지원 의무화 및 교육청·학교·지역사회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 선도 모델 개발(7개 교육청)
- 학업중단 원인 등에 대한 실태 파악(연 2회)과 맞춤형 지원으로 학업복귀 촉진
※ 맞춤형 지원 : 진로·진학정보 제공, 검정고시 무료과정 운영 등
- 소질·적성 발현을 위한 학교 내 대안교실(1,500실) 및 대학 등에 직업중심 위탁교육(110개)을 지원

□ 탈북학생 대안교육 및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취업 지원

- 탈북 대안학교 지원(8교)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단계별 교육경로 체계화 및 전환기학교 직업교육과정 확대 지원(2.5억원)
※ 초기(하나둘학교) → 전환기(한겨레중·고) → 정착기(일반 학교)

- 마이스터고(37교) 전체에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특성화고에 입학할 수 있도록 특례입학 제도 개선
 - 전환기학교에서 특성화고 전·편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 시·도교육청 직업교육 위탁과정(산업정보학교, 전문대 등)에 우선 선발

□ 다문화학생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 확충

- 다문화 학생 예비학교를 확대(52교→80교)하고, 다문화교육 중점 학교(120교) 육성 및 다문화언어강사 역량제고 추진(직무연수 등)
 - ※ 예비학교 :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 자녀 등이 정규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
- 대학생 멘토링, 직업교육 협력기관 확대(3개→10개) 및 글로벌 브릿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문화 학생 재능 계발 지원
 - ※ 대학생 멘토 : 4,837명('13) → 6,000명('14)
 - ※ 글로벌브릿지 : 수학·과학, 예체능 등에 뛰어난 자질이 있는 다문화 학생을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는 프로그램('14, 400명, 6.4억원)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 지원】

(국정과제 16-1, 50-11)

□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여건 개선

- 특수학교(학급) 신·증설 및 특수교사 증원으로 장애학생 교육여건을 확충하고 대학에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확대
 - ※ 특수학교/학급 수 : 163교/13,612개('13) → 166교/13,912개('14) → 171교/14,212('15)
 - ※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 : 58.6%('13) → 62.2%('14, 635명 증원)
 - ※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 2,500명('13) → 2,600명('14) → 2,700명('15)
- 직업교육 위탁 및 학교기업 운영 확대 등을 통한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 강화
 - ※ 직업교육 위탁 운영 : 5개 교육청('14)
 - ※ 특수학교 학교기업 : 17개('13) → 20개('14)

□ 학습부진 학생의 성장을 돕는 기초학력 보장

- 학습부진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 학습코칭 등을 지원하는 ‘학습 종합클리닉센터’ 운영(129개소)을 통해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원 강화
- 학습부진 진단, 보충학습자료 제공, 학습이력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하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활성화
- 학습부진 학생들의 심리상담-학습코칭-돌봄을 연계·지원하기 위한 ‘두드림학교’ 선정·지원(600교)

□ 영재교육의 질적 도약 기반 마련

- (가칭) “국가 영재교육프로그램 기준” 개발 및 사이버 영재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
※ 기준개발(’14~’15) → 시범 적용(’16) → 보급(’17)
- 고교-대학 영재교육 연계성 강화를 위한 영재학교·과학고 AP(대학 과목선 이수제) 안정적 정착 및 대학 우수 학부생 도전적 연구 지원
- 미래부와 협업으로 중·고등학교 내 학생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현하는 공간(학교내 무한상상실 : 다빈치교실) 설치·운영(’14)

【교육비 경감】

(국정과제 29, 62-6, 63, 64)

□ 유·초·중등학교 교육비 부담 완화

- (유아)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 및 고액 원비 유치원 재정 지원 차등화 등을 통해 유치원비 안정화 유도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3. 7. 12)

- (초등) '14년부터 초등 1~2학년 학생들 중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저녁 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

※ 오후돌봄(방과후~오후5시) : 7,395실('13) → 11,421실('14. 2차수요 미포함)

저녁돌봄(오후5시~밤10시) : 1,927실('13) → 4,046실('14)

- (중등) 고교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입학금 지원 지속 확대('14, 약39만명, 4,100억원)

- 교복가격 안정화 및 교과서대 인상억제 등을 통해 가계 부담 완화

※ 교복가격 안정화 : 출고가격 안정화 유도, 시·도별 가격 상한제 및 디자인 표준화, 학교주관 구매 등

□ 대학생 교육비 부담 집중 경감

-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성적기준 완화 (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 1회에 한하여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 소득분위별 지급률·지급금액 >

(단위 : 만원)

연도	기초~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2013	450 (100%)	270 (60%)	180 (40%)	135 (30%)	112.5 (25%)	90 (20%)	67.5 (15%)	67.5 (15%)
2014	450 (100%)	450 (100%)	337.5 (75%)	247.5 (55%)	157.5 (35%)	112.5 (25%)	67.5 (15%)	67.5 (15%)
증감	-	180(40%)	157.5(35%)	112.5(25%)	45(10%)	22.5(5%)	-	-

- ‘지방인재장학금’(1,000억원) 및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한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규 지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예산 1,225억원, 소득 8분위 이하, 만 20세 이하에 대해 연간 450만원 지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소득분위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고소득자의 부당수급 방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소득산정기준 개발 등 ('14.11)

- 든든학자금(ICL) 도입이전의 일반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은 ‘국민행복기금’에 매각 추진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14. 상반기)

4-2 사교육 · 입시부담 완화

【사교육 부담 경감】

(국정과제 29-2)

□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및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 시행

-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학교 교육과 각종 평가 · 입시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 학교 밖에서 미리 배울 필요가 없도록 교육과정에 맞게 수업하고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평가하도록 초 · 중등학교와 대학에 의무 부여, 위반시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

- 고교 및 대학의 입학전형에 대해서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 선행학습 영향평가제 : 학교 및 대학의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입학전형 계획에 환류

- 사교육 수요는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수요는 공교육 체계 내에서 최대한 흡수하는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 · 시행('14. 2월)

□ 가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영어 사교육비 부담 완화

- 학교에서는 기초적인 실용영어 중심으로 가르치고, 심화내용을 배우려는 학생에게는 이에 맞는 인프라 제공

※ 영어교사 심화연수, 원어민강사 활용, EBS 온라인학습 운영, 우수 영어수업 모델 및 수업동영상 보급 등

-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 내 영어 프로그램 금지 및 일부 사립초의 비정상적인 영어수업 운영에 대한 정상화 조치 추진

※ 초등 정규 교육과정 외 영어수업 금지, 법정 교과서 외 외국 교과서 사용 금지, 타 교과시간(과학, 수학 등)에 영어로 수업 금지 등

- 평가는 학습목표 도달 여부를 평가하는 성취평가제 확대 적용

※ '14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연차적 시행(중학교는 '12년부터 시행 중)

- 입시에서 영어 학습부담 경감 등 영어 사교육 유발 억제
 - 서울지역 국제중 입시의 공개 추천방식 전환, 외교·국제고 입시에서 영어 과목의 영향력 축소, 대입에서 쉬운 수능영어 출제 등 추진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 추진>

- (출제범위) 심화과목을 배제하고 일반과목에서만 출제
- (난이도) 정답률 낮은 유형(빈칸 추론 등) 축소, 실용영어 중심으로 듣기 출제
- (시험지 분량) 시험지 분량 축소방안 검토

□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 사교육 유발 요인 제거

- 2017학년도 수능에서 한국사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학교수업에 충실한 학생은 어렵지 않게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쉽게 출제
 - 출제방향을 반영한 예시문항을 개발하여 한국사 학습방법 안내 자료 제작·배포('14. 3월)
- 학생들의 한국사 과목 보충학습 편의성 도모를 위해 고교 EBS 한국사 강의 대폭 확대

※ EBS 한국사 강좌 수 : 476편('13) → 829편('14)

□ 학원비 안정화 지속 추진

-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및 선행학습 광고 등을 규제하고 시·도 조례로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도록 유도
 - 조례개정 미완료 시·도는 '14년도 말까지 완료하도록 적극 유도

※ 시·도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 현황 : 완료(5), 미완료(12)

- 고액 교습비 징수학원에 대한 시·도교육청 조정명령 강화

□ 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 불안 해소

-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 (주요 내용) 대학별 대입전형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평가하여 우수 대학 60개교 내외 선정·지원(610억원)
- (기대 효과) 대입전형이 간소화되고, 고교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학생·학부모의 대입전형 준비 부담 완화

- 고등학교 1학년부터 안정적으로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사전예고 기간을 확대하고, 발표 후 변경 제한
 - '1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종전보다 1년 앞당겨 '14. 8월 발표
 - ※ 사전예고 기간 확대 : 전형계획 수립 시 대학이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은 2년 6개월 전(종전 1년 6개월 전), 대학별 전형계획은 1년 10개월 전(종전 1년 3개월 전) 발표
 - 법령 제·개정 등 예외적 사유 발생 시에만 변경 허용
- 학교에서 제공하는 대입 정보와 진학상담만으로 대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맞춤형 진학지도 여건 조성
 - ※ 학생·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학교단위 설명회’(1,000개교), 진학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고3 담임 및 진로진학교사 2만명, 상·하반기 각1회)
 - 학생별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진학상담 프로그램(대교협)” 활용도 제고
 - ※ 고3 교사의 프로그램 활용률 : 65%('13) → 80%('14)
- 표준화된 원서를 한번 작성하여 접수하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 착수('14, 196억원)

□ 대입 논술전형 준비 부담 완화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논술전형 및 논술 선발인원 지속 축소
- 논술 문제는 '일반과목' 수준에서 출제하고, 출제 시 고교 교사 참여 및 시험문제·해설 공개 권장 등으로 논술준비 부담 완화
- 학교에서 제공하는 논술교육과 전문기관(대교협, EBS)의 논술정보만으로 논술전형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학교의 자율적 논술과목 신설, 관련교과 수업과 병행한 범교과 학습 권장 등
 - ※ 대교협 논술자료(교사 지도용 및 학생 자습용)의 내용 체계화, EBSi 논술 강좌(논·구술 집중대비 특강, 통합논술 주제별 특강 등) 강화

□ 고입·대입전형 외부 스펙 반영 제한

-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특목고, 자사고 등), 대입 학생부 전형 등에서 공인어학성적 및 외부 수상실적 반영 규제
 -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관련 외부 수상실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했을 경우 입시전형 서류점수 '0'점 처리
- 대입 특기자전형에서도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 관련 외부 수상실적은 반영하지 않도록 단계적 추진
 - ※ 급격한 변경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17학년도까지 점진적 축소·폐지 추진

□ 고입 예측가능성 제고

- 중1학년에 고입 전형요소·방법 등을 알고 진로를 결정하도록 특목고·자사고 등의 고입전형 사전예고기간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
 - ※ 단, 향후 지정이 취소되는 특목고·자사고는 사전예고 대상에서 제외

□ 특목고 운영 정상화

- 특목고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명문고가 아니라 당초 지정 취지에 맞게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가 되도록 운영 정상화
- “특목고 운영 성과평가단”을 구성, 입학전형과 교육과정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지를 5년 주기로 성과 평가('14. 하반기)
- 5년 단위 성과 평가 미흡 시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 지정 기간 중에도 입학·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시 수시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

※ '14학년도 5년 주기 성과평가 대상(총 50개교) : 외교 31개교 전체, 국제고 7개교 중 4개교, 과학고 20개교 중 15개교

4-3 글로벌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육한류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교육】

(국정과제 109)

□ 교육강국으로서의 발전경험을 전 세계 국가와 공유·확산

- 유네스코 2015 세계교육포럼을 충실히 준비하여 국가발전을 견인한 우리의 교육경험과 전략을 다른 나라와 적극 공유

※ '14년에는 의제, 행사 전반, 국내외 홍보확산 전략 수립 등 준비

< 유네스코 2015 세계교육포럼 >

- (개최기간·장소) '15. 5월(4일간) / 인천(송도 컨벤시아)
- (참가규모) 190개국 약 2,000여명
- (참가자) 유네스코 회원국(195개 정회원국, 8개 준회원국) 장관급 이상 대표, 200여개 국제기구 및 NGO·전문기관 대표 등
- (내용) POST-2015 세계교육발전 어젠더 설정

- 외교부 등과 협업을 통한 전략적 교육 ODA 추진으로 우리의 앞선 교육 시스템을 개도국에 적극적으로 소개·전수

※ 교육부-외교부 ODA 협력을 포함한 교육외교협력 MOU 체결('14. 2월)

※ 국제협력선도대학 지원대학수 : 4교('13) → 6교('14)

- 파리 한국관을 건립하여 유학생 유치 및 한국어·한류 확산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위상 제시

※ 한-불간 사업추진협정 체결('14. 3월)

□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한 우리 교육 경쟁력 강화

- 한-월드뱅크 공동세미나 개최('14. 11월)로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구체적 교육혁신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의 교육시스템 개편 작업에 활용

- 한·중·일 공동 어린이 동화책 발간, 3국 대학 간 공동·복수 학위 프로그램(CAMPUS Asia)을 마련하여 미래세대 간 협력토대 마련

※ 한·중·일 간 성과공유('14. 6월) 및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14. 12월)

- 유럽과 직업기술교육 및 고등교육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교육의 선진화, 청년 해외취업, 유학생 유치 다변화 등을 촉진
 - ※ 한-EU 공동선언('13. 11월), 한-스위스 MOU체결('14. 1월) 및 한-독일 교육협력

□ 재외 한국인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

- 지역·발전단계에 따라 유형화한 '재외 한국학교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14. 6월)하여 재외 한국학교를 글로벌 인재 양성의 산실로 활용
 - ※ (발전단계 예시) : 교육기반단계 → 외형성장단계 → 경쟁력 강화단계
- 현지 재외동포 교육수요에 기초한 한국학교 신설 타당성 조사와 함께 설립여건이 성숙된 지역에 한국학교 신설 추진
 - ※ 30교(현행) → 32교('14, 광주, 소주 한국학교 신설)
- 재외국민 자녀를 위한 한민족 뿌리교육(한국어 교재 및 교과서 보급 등)을 강화하고, 외교부와 협업하여 해외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도록 추진
 - ※ 재외국민용 교과서 공급 예산 : 2,519백만원('13) → 3,125백만원('14)
 - ※ 최근 3년간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 호주, 영국 등 23개국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

(국정과제 14)

□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여건 개선 및 해외수요 흡수

- 국내·외 교육기관 간 합작설립을 허용하여 우수 외국대학의 국내 진출 촉진 및 중국, 동남아 등 인근 국가 유학생 유치 확대
 - ※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14. 상반기)
-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교육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해외 조기 유학 수요를 국내 수요로 전환
 - ※ 국내학교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허용, 제주국제학교 결산 잉여금 배당 허용 등

□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유학생 유치 확대의 계기 마련

-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사증발급 심사 간소화, 한국어 입학기준 완화로 유학생의 입학부담 경감
 - ※ 불법체류율 1% 미만인 경우 출신국에 상관없이 표준입학허가서로만 사증발급 심사
 - ※ 한국어 입학기준(이공계열) : 3급 → 2급(대학은 1년간 한국어연수 기회제공)
- 학업 중 시간제취업 허용시간 확대,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등 유학생 학업·생활의 편의 제고
 - ※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인증대학 학부·어학연수생) : 주당 20시간 → 25시간
- 채용박람회 확대(연1회 → 2회 이상) 및 취업정보 제공 활성화, 구직 활동 허가대상 확대 등 졸업 후 취업 촉진
 - ※ 인증 전문대학 이공계 졸업생 : 평균학점이 3.0 미만인 경우에도 지도교수 추천 시 구직 활동 허용
 - ※ 「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개정(법무부, '14. 하반기)

IV.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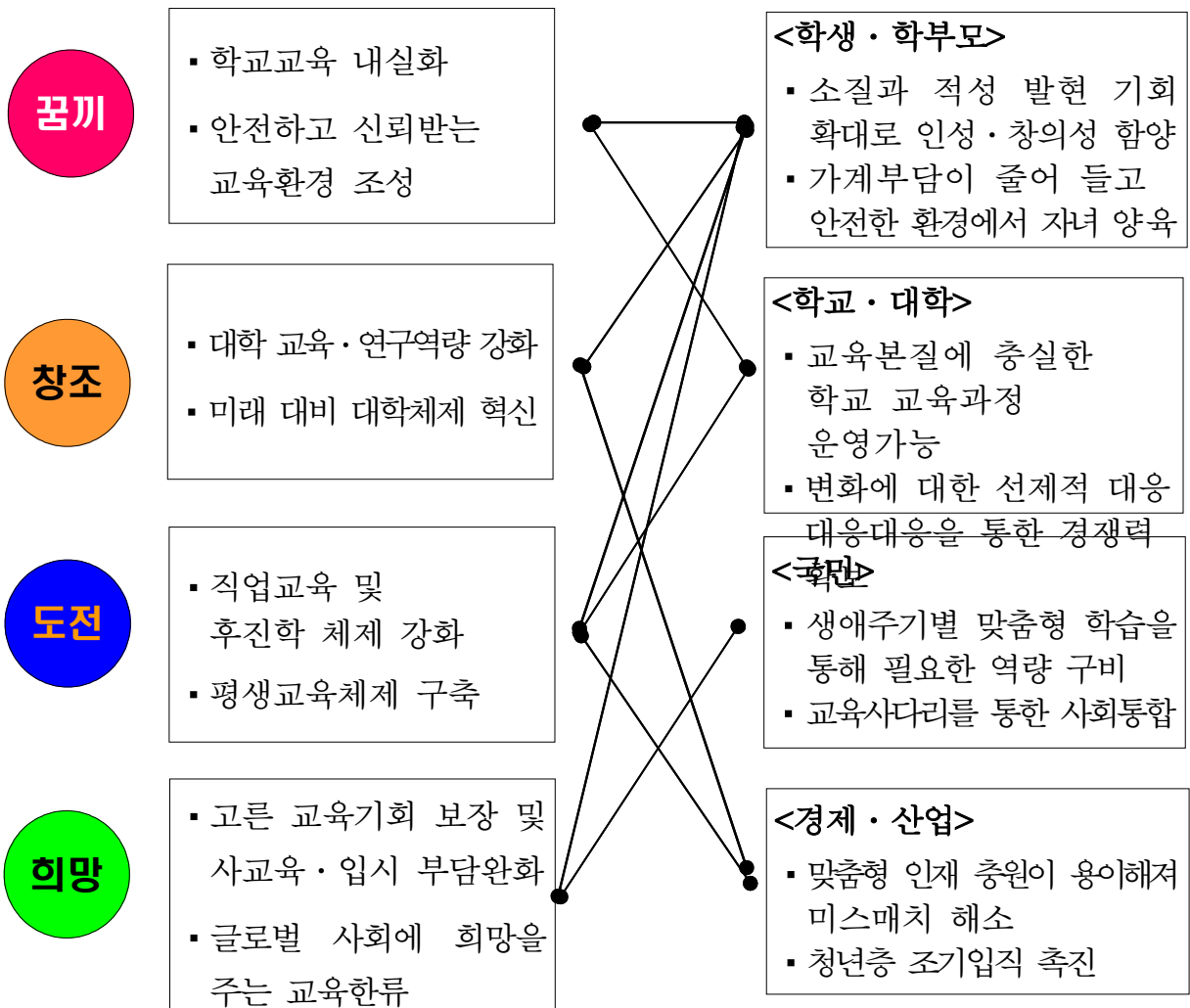
- 꿈끼, 창조, 도전, 희망 등 4대 가치를 바탕으로 8대 중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우리 교육현장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

- ❖ 학교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장으로 변화
- ❖ 대학 : 창조적 인재를 기르고,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적 지식창출
- ❖ 사회 :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능력중심 체제 강화
- ❖ 국가 :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열린 기회의 나라로 자리매김

□ 정책고객별 수혜효과

【8대 중점 추진과제】

【정책고객별 수혜 전망】



V. 소통 및 홍보계획

□ 기본 방향

- ◇ 정책고객별 현장중심의 공감 홍보 추진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제고
- ◇ 정책과제별로 홍보매체와 콘텐츠를 차별화하는 맞춤형 홍보 전략으로 정책 체감도 극대화
- ◇ 정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라인 소통의 장 마련, SNS 여론수렴 및 피드백 등을 통해 쌍방향 소통을 강화
- ◇ 중점홍보 과제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농협 등 민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홍보매체 다양화

□ 정책고객별 현장 소통을 통한 직접 홍보

- 교육 수요자별 소통프로그램 (가칭) '현문즉답'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이해도 제고
 - (학부모) 권역별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 단위학교 학부모회, 학부모 모니터단 등을 통한 소통 강화
 - (학생) 권역별 대학생동아리, 창업동아리, 초·중·고 학생 모니터단 등과의 간담회 실시
 - (교원) 교원연수·정책설명회, 진로진학교사 등 교사협의체, 교원 모니터단 등

□ 정책과제별 맞춤형 홍보

- 정책과제 특성에 따라 홍보 콘텐츠를 차별화하고 정책고객별 눈높이에 맞는 홍보 추진
 - (초·중등) 초등 돌봄 교실, 자유학기제, 학교폭력 근절, 인성교육 강화 등
- ※ 자유학기제의 경우 학생, 학부모, 교원용 홍보 콘텐츠 차별화

- (대학) 국가장학금, 창업문화 확산, 대학구조개혁 등
 - ※ 구조개혁의 경우 대학총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 (평생)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체제 구축(K-MOOC), 취약·소외계층 평생학습중점지원 등
 - ※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 인생 2모작을 위한 맞춤형 홍보

□ 쌍방향 소통을 위한 온라인 홍보

- 대표 홈페이지와 정책별 특별페이지를 통해 주요정책 및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
- SNS(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다양한 정책고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
- 학부모, 교사, 학생 등으로 구성된 블로거 기자단의 현장취재를 통해 정책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 밀착형 정책정보 제공
-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활용한 주요정책 및 현안관련 정보제공으로 정책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제고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 (협업) 시·도교육청 등 소속·유관기관, 대학 및 민간 MOU기관과 협업을 통한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접근
 -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자에게 교육정책이 효과적으로 홍보되도록 협업 추진
 - ※ 지역소통책임관(가제) 운영 : 초중등은 부교육감, 대학은 국립대 사무국장이 해당지역 소통책임관을 맡아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설명하고 여론을 수렴
-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교육청 전광판 및 소식지, 지하철 광고, 가정통신문, 반상회보, 대학가 게시판, 교원 연수자료, 주민자치센터·KTX역 등 다중집합장소 홍보자료 비치 등

[붙임1]

가치 · 전략 체계도

가치	전략	과제	성과	애로사항	대응책
모두가 행복한 교육 · 미래 를 여는 창의인재	I. (꿈끼)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①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교육 내실화	- 자유학기제 도입('13. 5, 42개 연구학교) - 학생 학교생활 만족도 : (사전) 3.34 → (사후) 3.72 -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 - 학교스포츠클럽수 : ('12) 17,314팀 → ('13) 31,622팀 - 오케스트라('13년 400개), 뮤지컬('13년 130개) - 인성교육 강화방안 발표('13. 8)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발표('13. 10)	- 문·이과 구분 교육으로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한계 - 교과서 개발 체제 부실 - 자유학기제 체험 자원·인프라 부족	- 자유학기제 확산 -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발 - 교과서 체제 개선 - 예술·체육교육 강화
		②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	- 현장중심학교폭력 대책 발표('13. 7) - 학교폭력 감소 - 피해응답률 : ('12) 9.6% → ('13) 2.1%	- 사이버·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유형변화 - 교원업무경감 체감도 저조	- 체형형 예방교육 등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추진 - 신규교원 집중 연수 -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II. (창조) 창조적 인재를 기르는 질 높은 대학	③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교육·연구 역량 강화	- 지방대학 육성방안 발표('13. 7)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13.12) - 지방대학 예산지원 확대 : '13년 대비 40% 증액 - 산학협력 활성화 10대 중점 추진과제 발표('13. 12) -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수립('13. 9) - BK21플러스 사업 출범(74개 대학 550개 사업단) - 인문학 분야 연구 양적성과 확대 - SCI 논문수 : ('09) 396건 → ('13) 866건	- 우수학생 지방대 기파·지역경제 약화 악순환 발생 - 중소기업 취업 기피,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 특성화 지방대학 육성 및 우수지역인재 양성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 창업친화적 교육여건 조성 - 인문학 연구 확대 및 연구인력 양성
		④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대학체제 혁신	'고등교육 종합발전방안' 마련('13.10) - 상시적 대학구조개혁 체제 구축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구성·운영('11. 7~)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발표('11. 8~)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	- 대학구조개혁 추진 - 법·제도적 기반 마련 - 평가·정원감축 등 - 대학 학사관리 개선 - 대학원 질 관리·제도개선
	III. (도전)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능력중심의 사회	⑤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과 직업교육 강화	- NCS 및 학습모듈 개발 추진 ('13) NCS 250개 분야 및 학습모듈 55개 분야 -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기본계획 수립('13.12) - 부처·지자체 및 산업계 연계 특성화고 확대('13년 201개)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률 제고 - 마이스터고 1기 졸업생 취업률('13.4, 90.3%) -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11년 25.9% → '13년 40.9%) - 전문대학 육성방안 수립·발표('13. 7)	- NCS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미흡 - 경기불황으로 인한 고졸채용규모 축소 - 고졸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 교육과정의 현장수요 반영 부족	- NCS·NQF 구축 및 능력중심사회 기반 마련 - NCS 기반 교육과정 개선 - 직무능력강화기준 개발 - 한국형 마이스터고 확산 - 후진학 인프라 확충 - 특성화전문대학
		⑥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	- 제3차 평생교육진흥계획 발표('13.9) - 국가단위 평생학습 종합서비스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13.7) - 읍·면·동 행복학습지원센터 시범운영('13, 84개)	- 재직자 등을 위한 계속교육 카리큘럼 부족 - 우수한 온라인 콘텐츠 공유·활용방안 필요	-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여성·은퇴자 취업·계층 평생교육기회 확대 - 한국형 '온라인 대중공개 강좌'(K MOOC 등) 설계
	IV. (희망)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열린 기회의 나라	⑦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 누리과정 확대 및 전 계층 지원 단계 인상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및 학자금대출 채무 부담 경감 지원 - 등록금 부담 경감률 : 약 42.8%('11년 등록금 기준) - 학자금대출이자 감감(29%), 군입대시 대출이자 면제 - 농어촌·벽지 및 장애학생 지원 강화 - 농어촌 ICT 지원 : 300교, 32.5억('13) -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발표('13.11) -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발표('13.10)	- 초등돌봄 확대 인프라 부족 - 유치원비 과다인상 - 도·농 간 교육격차 -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실태 파악 미흡 - 사교육비 부담 - 영어학습 부담 과중	- 초등 돌봄교실 확대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탈북학생 직업교육 강화 - 선행학습 근절 등 사교육 수요 억제 - 영어학습 부담경감 - 고입·대입 사전예고기간 확대 - 입시 외부스펙 반영 제한
		⑧ 글로벌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육한류	- 유네스코 2015 세계교육포럼 한국 개최 발표('13. 11.) - 개발도상국 ODA 사업 추진 - 첨단 ICT 시범교실(2개국), 이러닝 세계화 사업(17개국),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4개국) 등 - 한중일 대학생 교류사업(CAMPUS Asia)추진 - 유학생 유치규모 확대 2.3만명('05) → 8.6만명('13)	교육외교 상대국 다양성 부족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 전략적 ODA추진 - 한·월드뱅크(WB) 공동연구 세미나 등 - 글로벌 교육협력 확대

[붙임2]

교육부 소관 국정과제 현황

번호	국정과제명	세부과제명
12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농식품의 6차산업화
15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창조형 청년창업가 발굴·양성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
16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창의력·상상력이 풍부한 융합형 과학기술인재양성
17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기능 강화	산·학·연 협력 패러다임을 '창업과 신산업 창출'로 전환 출연(연)은 산·학 협력 매개와 중소기업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 지역별로 특성화된 창업생태계 조성
28	서민 금융부담 완화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29	교육비 부담 경감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사교육비 경감 추진 한국형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저소득층에 대한 욕구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생명을 살리는 손길, 응급의료체계 개선
50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청각장애인 지원확대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51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글로벌 인재 육성
52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주거·의료·교육 등 도시 수준으로 정주여건 개선
54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상시·지속적인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등
62	행복한 임신과 출산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방안 마련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학교내 돌봄 기능 강화 부처별 돌봄 사업간 연계체제 강화
64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65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66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참고서가 필요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마련 학교체육 활성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67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	대입전형 간소화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대입전형 3년 예고제
68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	고등교육 재정 확대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편 성과 평가 및 대학 정보공시 강화
69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번호	국정과제명	세부과제명
		교원평가제도 개선
		신규교사 채용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70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	관련부처·지자체 및 산업체 연계 특성화고 육성 특수분야 전문인재 양성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국가직무능력표준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소질과 적성, 취업의지를 갖춘 학생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 고졸 취업 지속 확대 및 취업자 학위 취득 인프라 구축
71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집중 육성 전문대학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전문대학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전문대학생의 해외진출 활성화
72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기반 평생학습도구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
73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74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성폭력·성희롱 예방체제 강화
76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 추진 학교 내부 및 학교주변의 학교폭력 감지·대응체제 구축 Wee 프로젝트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를 통한 상담·치료 지원 강화 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 관리 및 학생 자살예방 체계 확립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80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민주 시민의식 향상을 통한 법질서 존중 문화 구현
84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추진
103	지방대학 지원 확대 ★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방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으로 취업기회 확대
109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세종학당' 확대로 해외 한국어교육 기반 강화
113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한국문화 DB 구축 및 보급 등 체계화 문화정체성 정립을 위한 정신문화 진흥 기반 구축
115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복지 실현
116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국가대표 체육지도자 자격 부여, 학교스포츠강사 처우개선 등 체육인복지 강화
121	보람 있는 군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생산적 군 복무 및 군 복무경험의 사회적 보상 확대
126	통일 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	탈북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의료 지원 강화 및 통일미래의 역군으로 육성

※ ★ : 교육부 주관 국정과제

과제명	2014년				2015년 이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략 1. 【꿈끼】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중점과제 1-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교육 내실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 구축	▪ 연구학교 운영 ▪ 희망학교 및 선도 교육지원청 선정	▪ 시·도교육청 별 희망학교 운영지원	▪ 자유학기제 박람회 ▪ '15년도 자유학기제 운영계획 수립	▪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기본계획 수립('15.상) ▪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16.~)
학기말 “꿈끼 탐색주간” 운영	▪ 학년말 학사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 2월 학사 운영 현장 실태 파악	▪ 2월 학사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 학년말 학사 운영 현황 점검 ▪ '15년도 교육계획 반영 및 우수사례 안내	
맞춤형 진로설계	▪ '14년 내실화 운영방안 수립 ▪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개선(~6월)	▪ 농산어촌 원격 화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진로체험지원 전산망 전국 학교 운영	▪ 학교진로교육 프로그램 선도 연구학교 운영 보고회	▪ 스마트 교육과 연계하여 개발된 자료의 디지털 콘텐츠화 확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마련	▪ 총론 시안 개발연구 시작 및 개정방향 논의	▪ 총론 핵심사항 의견수렴	▪ 핵심사항 발표 ▪ 각론(시안) 개발연구 추진	▪ 각론 현장 의견 수렴	▪ 개정 교육과정 고시 ▪ 해설서 개발
교과서 체제의 근본적 개선	▪ 교과서 개발 체제 개선 연구 추진	▪ 교과서 개발 체제 개선 연구 및 공론화	▪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	▪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체제구축	▪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연차개발
예술.체육.인문교육 활성화	▪ 예술교육사업 종합 공모 및 운영 학교 선정	▪ 학교스포츠 클럽리그 운영	▪ 토요 스포츠데이 승마프로그램 운영	▪ '14년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 전국 예술교육 페스티벌 개최 ▪ 초등학교체육 전담교사 배치
일반고 교육역량 본격 지원	▪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위한 재정 지원	▪ 일반고 대상 컨설팅 및 홍보 강화		▪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추진 이행 점검	▪ 진로집중 교육 과정 확대 추진

과제명	2014년				2015년 이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체계적 통일교육 추진	-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 천안함 폭침 추모 계기 교육 실시 (3.26)	- 상반기 통일 교육협의회 - 제2회 통일 교육주간 행사(5월 중)	한·독일간 교원 상호 교류 추진	- 하반기 통일 교육협의회 -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계기교육 실시 (11.23)	- 통일교육자료 지속 개발 추진 - 통일교육 실태 조사 실시
'국토사랑 프로젝트' 추진	- 국토 사랑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 독도지킴이학교 선정	찾아가는 독도전시회 개최	독도 과거(科擧) 대회	- 국토사랑 프로젝트 체험 공모전 개최 - 찾아가는 독도전시회	
ICT를 활용한 미래형 교육모델 개발·적용 방안 마련	디지털 교과서 시범적용	공청회 및 의견수렴	15년이후 추진방안 마련	시범운영 성과보고회 및 만족도 조사	15년이후 추진방안 후속조치 실시
학생 발달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성교육 추진	국가수준의 학교성교육 표준안 개발	학교성교육 추진실태 조사체계개발	학교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체계개발	학교성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국가수준의 학교성교육 표준안 적용 및 체계적 운용
실천·체험형 인성교육 강화	'14년 기본계획 수립 - 중학교 자료 현장보급 및 초등 자료 개발 공모	- 우수학교, 동아리, 지역단위 네트워크 선정 - 교사 동아리 운영·워크숍	인성교육 우수프로그램 인증	- 인성교육 대상(大賞)선정 - 창의·인성 교육박람회	고등학교 자료 개발·보급 추진
중점과제 1-2.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 맞춤형 대응 강화	체험형 예방활동 강화, 사이버폭력 신고·상담시스템 강화	사이버·언어 폭력 보완 대책 수립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 어울림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 어깨동무 학교 운영 및 컨설팅	- 문화체험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과보고(6월) - 인성교육 범국민 캠페인		어울림심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확대 (~12월)	어울림 운영성과 분석 및 확산('15~)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	학교 내 고화소 CCTV	학생안전지역 시범사업 추진	학생안전지역 관련 법률안 제정 추진	-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 학교급식	(가칭)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과제명	2014년				2015년 이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설치(~3월) ▪ 학교급식 점검요령 전문교육 실시	▪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강화 ▪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 추진세부 계획 확정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완료	안전관리 추진상황 점검·평가	- 제정 ▪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시행
위기학생 맞춤형 상담 및 치료 지원 강화 (Wee,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 2014학년도 정서·행동특성 검사기본방향 마련 ▪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사업 교육청 공모·선정	▪ 교육청 및 단위 학교 컨설팅 ▪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검사결과 정리 및 전문기관 연계·조치 ▪ 학생정신건강 정책 포럼	▪ Wee 프로젝트 확대 및 운영 내실화(12월) ▪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 모델 사업 성과 평가	▪ Wee 프로젝트 지속적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검사도구 보완·개발('16~)
수업과 생활지도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전념여건 조성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마련,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의견수렴(~'14.3) ▪ '15~'25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14.3) ▪ 교원 행정업무 경감 컨설팅 지원 정책 연구 계획 수립('14.3)	▪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신청('14. 6) ▪ '15년도 교원정원조정 협의('14.5) ▪ 학교의 교원 행정업무 경감 컨설팅 지원('14.6~)	▪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 실시(~'14.9) ▪ 교원 행정업무 경감 운영 매뉴얼 개발 보급('14.9) ▪ 학교교육통계 시스템을 활용한 통계조사 실시('14.10)	▪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 선발('14. 12) ▪ 교육청별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 진단 및 개선안 마련 시행(~'14.12)	▪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배치('15.~) ▪ '15~'25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른 교원 확보 ▪ 교원 행정업무 경감 우수 사례 정책화·확산(계속)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양성·임용체제 개선 연구 (△교원평가제도 개선, △교원 양성·임용·연수 체제 개선방안 연구, △성범죄 교원 교단 퇴출 및 자격박탈 검토)	▪ 평가지표 개선 2단계 시범운영 계획 마련('14.3) ▪ 교원 양성 및 자격 개선 관련 정책연구(~6월) ▪ 성범죄 교원 교단 퇴출 방안마련('14.3)	▪ 연구학교 적용 2단계 시범운영 초안마련('14.6) ▪ 초임교사 역량 집중연수 제 관련 정책 연구(~10월) ▪ 초·중·고·교육법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개정 추진('14.4~)	▪ 2단계 시범운영안 확정 및 관계자 설명회 실시('14.8)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적용('14.9~)	▪ 2단계 시범운영 및 운영 성과 분석, 제도 개선안 마련 추진 ▪ 교원 양성 및 자격개선안 마련(10월) ▪ 초·중·고·교육법 개정 완료('14.12)	▪ 필요 시 법령 정비('15.8) 및 전면 실시('15.9~) ▪ 개선안 시행('15.3월~) ▪ 초임교사 역량 집중연수제 실시('15.~) ▪ 개정된 초·중·고·교육법 적용('15.3~)

과제명	2014년				2015년 이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교원의 사기진작 및 꿈끼 발현 기회 확대	▪ 교원의 꿈과 끼 발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은사초청, 사제동행콘서트	▪ 교원 미술·서예 대전	▪ 꿈과 끼 유공교원 표창 실시	▪ 스승 공경 풍토 확산 프로그램 개발 ('15.~)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 학부모전용 온라인교육확대 운영	▪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운영		▪ 학부모 학교 참여 우수사례 발굴·보급	▪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지속추진 ('15.~)
개인정보보호 강화	▪ 보안서버 확대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단 구성·운영 ▪ 정보보호영재 교육원 설치·운영 계획 수립 및 공모	▪ 보안서버 설치·보급 ('14. 3~) ▪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 ▪ 정보보호영재 교육원 선정·평가 및 지정	▪ 개인정보 관리 개선사항 이행 ('14. 7~) ▪ 정보보호영재 교육원 모집·운영 ('14. 7~)		

전략 2. 【창조】 창조적 인재를 기르는 질 높은 대학

중점과제 2-1.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교육·연구 역량 강화

인문학 연구 진흥	▪ 인문학진흥 종합계획 마련	▪ 전략적 국제 연구 주제 개발	▪ 전략적 국제 연구 과제 선정 ▪ 디지털 콘텐츠 사업단 선정	▪ 국제연구과제 지원 ▪ 세계인문학포럼 개최	▪ 인문학후속 세대 육성체제 마련(신규사업)
인문학 대중화 및 성과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인문학진흥종합계획 마련 ▪ 인문도시 관련 정책연구	▪ 인문도시 사업 계획 수립 ▪ 인문브릿지 사업 정책연구	▪ 인문도시 선정 평가 ▪ 인문브릿지 사업 계획 수립	▪ 인문도시 선정 및 사업 추진 ▪ 인문브릿지 사업 시범 추진	▪ 인문도시 콘텐츠 / 프로그램 개발 ▪ 인문브릿지 사업 신규사업 반영

과제명	2014년				2015년 이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초교양교육 강화	▪ '14.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ACE) 사업 기본 계획 마련 ▪ 기초교양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 ACE 사업 선정평가 및 지원 대학 선정 ▪ 교과목 개발 및 교원연수, 포럼	▪ 기초교양교육 개별대학 컨설팅, 인성 교육심포지엄	▪ 기초교양교육 학술대회	
창의적 아이디어 지원 등 풀뿌리 연구 활성화	▪ SGER 계획 수립	▪ 개인과제 연구개시	▪ 이공중점 연구소 선정 및 연구개시	▪ SGER 연구 개시	
산학협력 선도대학 2단계 사업 본격 추진	▪ 2단계 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 2단계 사업 “단계·신규 평가” 실시 및 추진 대학 최종 확정	▪ 사업 성과 포럼 개최	▪ 현장실습 및 캡스톤 디자인 우수작 선정	▪ LINC사업 연차평가 실시('15.)
현장적합성 높은 엔지니어 육성을 위한 공학교육 혁신	▪ 공과대학 혁신방안 마련 (미래부, 산업부 협업) ▪ 공학교육 혁신센터 활성화 방안 수립	▪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기본계획 수립 ▪ 공학분야 BK21플러스 평가표 개선	▪ 공과대학 혁신 위원회 개최 (미래부, 산업부 협업) ▪ 공학교육 페스티벌 개최 계획 수립	▪ 공학교육 페스티벌 개최	▪ 부처합동 공과대학 활성화 추진 ▪ 공학교육 혁신센터, 공학교육 페스티벌 사업 추진 ▪ BK21플러스 중간평가 실시('15.)
산학협력단의 산업체 맞춤형 교육·연구 및 기술사업화 지원 강화	▪ 산학협력 창조네트 워크 조성	▪ 산학협력 중개센터 시범 운영		▪ 산학협력 전략적 포지션 맵 개발 보급	
창업교육 활성화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확대('14. 3.~계속)	▪ ‘길없는 길, 나의 길’ 콘서트 개최	▪ ESG(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모형)에 창업교육 지표 반영	▪ 창업교육 우수대학 선정·지원 ▪ 창업경진대회 개최	▪ 창업대학생에게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 온라인강의 플랫폼 구축
세계로 진출하는 대학생 지원	▪ 기본계획 수립 ▪ 현장학습 관련 한·독 MOU 체결	▪ 세계로 사업단 선정 ▪ 현장학습 상 반기 파견 ▪ 봉사 파견대상 선정·교육	▪ 세계로 현장 점검 및 컨설팅 ▪ (현장학습)현 장점검 및 하반기 파견 ▪ (봉사) 파견	▪ 세계로 우수 성과 확산 ▪ 현장학습 체험수기 공모전 ▪ (해외봉사)현장 점검	▪ 세계로 연차 평가 ▪ 글로벌 성과 점검 및 파견 ▪ (봉사)성과점검 및 봉사자 파견

과제명	2014년				2015년 이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캡스톤 디자인 작품 등을 거래하는 경매식 시장 조성		▪ 기본계획 수립	▪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작 포상	▪ (가칭)캡스톤 옥션·장터 운영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 육성	▪ 특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 사업단 선정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 계획 수립	▪ 특성화 사업 현장 점검 및 컨설팅	▪ 우수성과 확산 및 공유	▪ 연차평가
중점과제 2-2. 미래 사회를 대비한 대학체제 혁신					
선제적 대학 구조개혁 추진	▪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 마련	▪ 대학 구조개혁 평가 편람(안) 마련 ▪ 평가체제 마련 정책연구		▪ 서면·현장평가 실시	▪ 전체 대학 정 원감축 계획 발표 등
잘 가르치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학부교육체제 구축	▪ 현장 친화형 교육 활성화	▪ 대학학사업무 메뉴얼 개발 (~6월)	▪ 채용·재임용 시 현장 경 력 반영 근 거 마련을 위한 법령 (안) 마련		▪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 대학정보공시 지침 개정
대학원 경쟁력 강화 및 질 관리	▪ 대학원 제도 개선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 대학원대학 종합진단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시행계획 마련	▪ 대학원 제도 개선 관련 법령 개정	▪ 대학원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평가	▪ 대학원대학 평가체제 구축 (‘15~)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및 효율적 재정 운영 지원	▪ ‘고등교육 재 정지원 정보 시스템’ 운영 세부계획 마련	▪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항목 분석·정비 정책연구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분석 자료집 발간	▪ 재정지원 사업 별 평가항목 분석 및 개선(‘15.~)
대학 운영의 효율성·책임성 확보 기반 구축	▪ ‘국립대학 혁신 지원’ 기본계획 마련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개정	▪ 혁신지원대상 선정평가 ▪ 「사학기관 외부회계 감사 기준(가칭)」 제정 ▪ 사학기관 예산 접수	▪ ‘혁신계획안’ 중간(성과) 평가 ▪ 사학기관 결산 접수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 ▪ 국립대학 자원 관리 시스템 응용SW 개발 착수	▪ 국립대학 자원 관리 시스템 - 개발완료(‘15) - 시범운영 및 전면 확산 (‘16~)

과제명	2014년				2015년 이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략 3. 【도전】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능력 중심의 사회					
중점과제 3-1. 현장 중심 직업교육					
한국형 직업교육 모델 구축	▪ 제9차 마이스터고 지정 필요 분야 발굴	▪ 제9차 마이스터고 지정	▪ 제10차 마이스터고 지정 필요분야 발굴	▪ 제10차 마이스터고 선정 계획 수립 및 지정	▪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지속 추진('15~)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한 기반 강화	▪ KBS스카우트 제작지원계획 수립	▪ 고졸인재 잡 콘서트(4월) ▪ 방위사업 잡 콘서트(5월)	▪ 고졸성공 취업박람회(9월)	▪ KBS스카우트 성과보고회	▪ 고졸취업 지원 지속 확대('15~)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 기본계획 확정 및 사업공고	▪ 특성화 전문대학 최종선정 및 발표	▪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 전문대학 EXPO	▪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 전문대학 교육 포럼	▪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평가 결과 환류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 기본계획 확정 및 사업공고	▪ 평생직업 교육대학 최종선정 및 발표	▪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평가 결과 환류
산업기술명장대학원	▪ 관련 법령 개정 추진(~6월)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운영 계획 수립·추진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선정 및 설치 등 운영 준비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운영('15~)
재직자의 후진학 및 능력개발 기회 확충	▪ 후진학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지원대학 선정	▪ 사업 중간점검 및 1차 컨설팅	▪ 사업 2차 컨설팅 성과분석 및 연차평가	▪ 선취업 후진학 지원 확대
학력을 대체하는 능력인정체계 마련 및 확산	▪ 청소년 선호 분야 선정 ▪ 업무협약 체결(3월~)	▪ 산업계 주도 NQF 시범 사업 추진(4월~)			▪ NQF 구축('17. 까지 완성)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기반 구축		▪ 성적표기 방식 개선 정책연구(4월~10월)		▪ 성적표기 방식 개선	▪ 개선된 성적표기 방식 적용('15~)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캠페인 연중 실시	▪ NCS/NQF 박람회(8월)		
일자리 중심 교육으로 개편(특성화고, 전문대학, 4년제 대학)	▪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 교과 교육과정(각론) 개발 계획 수립	▪ NCS기반 교육과정 총론 개발 ▪ 직무능력평가 제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교원 대상 NCS기반 교육과정 인식 확산 현장지원 연수		▪ NCS 교육과정 고시 ▪ 교원 역량 제고 및 심화 현장지원 연수 추진

과제명	2014년				2015년 이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 제9차 마이스터고 지정 필요분야 발굴	▪ 제9차 마이스터고 지정	▪ 제10차 마이스터고 지정 필요분야 발굴	▪ 제10차 마이스터고 선정 계획 수립 및 지정	▪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지속 추진('15~)
취업 희망 학생 직업교육 기회 확대	▪ '14 일반고 위탁과정 및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모집 결과 분석	▪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모형 개발 및 전형 지침 마련	▪ 시·도별 취업희망자 전형 요강 확정	▪ 시·도교육청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학생 선발	▪ 취업 희망 학생 직업교육 기회 확대 지속
고졸취업 지원 지속 확대	▪ KBS스카우트 제작지원계획 수립	▪ 고졸인재 잡 콘서트(4월) ▪ 방위사업 잡 콘서트(5월)	▪ 고졸성공 취업박람회(9월)	▪ KBS스카우트 성과보고회	▪ 고졸취업 지원 지속 확대('15~)
후진학 체제 마련	▪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지원대학 선정	▪ 사업 중간점검 및 1차 컨설팅	▪ 사업 2차 컨설팅, 성과분석 및 연차평가	▪ 선취업 후진학 지원 확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스스로 교육·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 활성화 지원	▪ 기업 자체 교육훈련 시스템 활성화방안 정책연구(~4월)	▪ 지원방안 마련(6월)	▪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안 마련	▪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12월)	▪ 제도개선안 등 시행('15~)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 기본계획 확정 및 사업공고	▪ 특성화 전문대학 최종 선정 및 발표	▪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 전문대학 EXPO	▪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 전문대학 교육포럼	▪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평가 결과 환류
산업기술명장대학원	▪ 관련 법령 개정 추진(~6월)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운영 계획 수립·추진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선정 및 설치 등 운영 준비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운영('15~)
수업연한 다양화	▪ 관련 법령 개정 추진(~6월)		▪ 학제 및 수업연한 다양화 시행계획 수립·추진		▪ 학제 및 수업연한 다양화 추진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 기본계획 확정 및 사업공고	▪ 평생직업 교육대학 최종 선정 및 발표	▪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평가 결과 환류
중점과제 3-2.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체제 구축	▪ KOCW 콘텐츠 확충(연중)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 K-MOOC 계획 수립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지자체 선정	▪ K-MOOC 플랫폼 설계 착수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중간점검	▪ 평생학습 종합 정보서비스망 시범개통 ▪ K-MOOC 플랫폼 설계 완료 ▪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K-MOOC 서비스 고도화, 해외연계 등

과제명	2014년				2015년 이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취약·소외계층 평생학습 중점 지원	- 평생학습 중심 대학 사업 기본 계획 수립 - 성인 문해 사업 공모	평생학습 중심 대학 선정·지원	‘문해의 달’ 및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평생학습 중심 대학 성과분석 및 연차 평가 - 성인문해 사업 성과 평가	문해교육기관 및 비문해 성인 지원 확대
대안적 학위/학점 취득제도 질 관리 강화	- 학점법 개정 (~12월) - NCS 기반 표준 교육과정 개편	NCS 기반 표준 교육과정 개발	NCS 기반 표준 교육과정 시범 운영	- 사이버 대학 평가체제 마련 - 사이버 대학 설립인가 기준 법령 개정 추진	- 학점법시행령 개정(1월~) - NCS 기반 표준 교육과정 확대

전략 4. 【희망】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열린 기회의 나라

중점과제 4-1. 고른 교육기회 보장

ICT를 활용한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스마트기기, 무선인터넷망, 멘토링 지원	지원학교 연수 실시		사업 성과 분석	스마트기기 및 무선인터넷망 보급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 강화	-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지원 - 공교육 내 대안교육 제도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대안교육기관 현황 일괄 조사 추진	공교육 내 대안교육 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 학업중단 실태조사 - 대안교육시설 관련 법제화 추진	다양한 대안교육기관 확충 및 지속 지원
탈북학생 교육			‘15년 마이스터고·특성화고특례·특별전형안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진로직업교육 강화
다문화 학생 교육	예비학교 지정·운영	대학생 멘토링 사업 대상 대학 선정 및 운영	이중언어 말하기 전국대회	글로벌 브릿지 사업 성과 보고회	

과제명	2014년				2015년 이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유.초.중등학교 교육비 부담 완화	▪ '14년 누리과정 지원 계획 확정 ▪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 운영(연중) ▪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	▪ '14년 누리과정 예산 집행실태 점검 ▪ 초등돌봄교실 추가 확충 ▪ 초등 방과후 돌봄 연구학교 운영 ▪ 지방교육재정 여건 분석 · 진단	▪ 초등 방과후 돌봄 연구학교 컨설팅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계획 마련	▪ '15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 초등 돌봄 연구학교 성과보고회	▪ 누리과정 추진계획 수립('15.~) ▪ 초등방과후 돌봄 확대 시행('15.~)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대학생 교육비 부담 집중 경감	▪ '14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계획 수립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원(1차) ▪ 전환대출 및 국민행복기금 매각 관련법 개정 추진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원(2차) ▪ 전환대출 준비	▪ 국가장학금 사업성과 분석 ▪ 국민행복기금 매각 및 전환대출 시행 ▪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활용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	▪ '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향 의견수렴 ▪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개발 완료	▪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 수립 ('15) ▪ 학자금대출 시행계획 수립('15)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여건 개선	▪ 특수학교(급) 신·증설 현황 조사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기본 계획 수립	▪ 과밀학급 · 원거리통학 현황 조사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현장 점검	▪ 특수학교(급) 신·증설 추진계획 및 학생수용계획 조사	▪ 특수교사 정원확보 및 시도교육청 가배정	▪ 특수학교(급) 신증설 지속적 추진('15.) ▪ 특수교사 연차적 증원 추진('15)
학습부진 학생의 성장을 돕는 기초학력 보장	▪ '14. 1학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 두드림학교 희망학교 선정	▪ 기초학력보장 사업 현장 점검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1차 평가(6월)	▪ '14. 2학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2차 평가(9월)	▪ 기초학력보장 사업 성과평가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3차 평가(11월)	▪ 기초학력보장 사업 기본계획 수립('15.)

과제명	2014년				2015년 이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영재교육의 질적 도약 기반 마련	- 국가 영재교육프로그램 기준개발 정책연구 - 과기대-과학고 관리자 AP워크숍	- 중앙영재컨설팅단 구성 - 과학고 교원 AP워크숍 - 대학 우수학부생 연구과제 접수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워크숍	- 과학고AP 운영매뉴얼개발 - 대학 우수학부생 우수사례 선정	- 기준(안) 시범적용 및 확정 - 과학고 AP본격운영(16~)
중점과제 4-2.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선행학습 유발요인 최소화 등 사교육 부담 완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시행	1학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점검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2학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점검	
한국사 사교육 유발 요인 제거	- 한국사 출제경향 및 예시문항 개발 - 한국사 학습방법 안내자료 제작·배포		전국연합학력고사 등을 통해 한국사 문항 검증 및 개선	전국연합학력고사 등을 통해 한국사 문항 검증 및 개선	
영어 사교육비 부담 완화	‘15학년도 수능 영어 학습 안내자료 배포 - 고교 1학년 보통교과 성취평가제 도입	성취평가제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성취평가제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15학년도 수능출제 범위에서 심화과목 배제	성취평가제 적용 확대(‘15년 고2, ‘16년 고3)
대입 준비 불안 해소	대입 진학상담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 대입전형 변경제한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1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	‘1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1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	‘15학년도 정시모집 대입전형 박람회	매년 대입전형 기본사항 및 대입전형 시행계획 적기 발표

과제명	2014년				2015년 이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고입전형 사전예고 기간 확대	고입전형 사전예고 기간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특목고 운영 정상화 방안 (고입전형 사전예고 기간 확대 포함) 수립	'17학년도 고입전형 사전예고	고입전형 사전예고 순차적 실시
특목고 운영 정상화	- 고등학교 영향 평가 실시 '15학년도 고입 입학전형 매뉴얼 배포	특목고 운영 성과평가 지표개발	- 시도교육청, 특목고 성과 운영평가 실시 - 특목고 운영 정상화 방안 수립		특목고 운영 정상화 방안 후속조치 추진
중점과제 4-3. 글로벌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육한류					
전략적 교육 ODA 추진	- 교육부-외교부 MOU 체결 - 국제협력선도대학 신규 선정(2개교)	-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 몽골, 필리핀 교사 초청	- 국내 교사 개도국 파견 2014 이러닝 국제컨퍼런스 개최(이러닝 코리아)	- 한-국제기구 공동 ICT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첨단 ICT 시범교실 구축·운영(2개교)	- 교육 ODA 신규사업 추진 - 외교부, KOICA 등 ODA 유관기관과 협업 지속
유학생 유치·지원 확대	'Study Korea 2020 Project' 세부추진계획 발표	홍보 및 취업 관련 정책연구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 요령' 개정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개정(법무부)	- 인증대학 혜택 강화(사증발급, 시간제 취업, 이공계생 한국어 요건 완화) - 유학생 의료보험가입 의무화
재외 한국인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	광저우 한국학교 설립승인(2월)	발달 유형별 한국학교 종합발전방안 마련	소주한국학교 개교(9월)	한국어 교재 및 교과서 수요조사	말레이시아 한국학교 개교('15~)

[붙임 4]

교육부 기관 현황

1. 연혁

□ 문교부 신설 ('48.11월) → 교육부 ('90.12월) → 교육인적자원부 ('01.1월)
→ 교육과학기술부 ('08.2월) → 교육부 출범 ('13.3월)

2. 조직

□ 본부 및 소속기관

- (본부) 3실 3국 10관 49과, 534명
- (소속기관) 6개 기관, 286명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학술원사무국, 국립국제교육원
- (국립학교) 44교, 25,879명
 - * 국립대학 27교, 교육대학 10교, 방통대 1교, 전문대학 1교, 특수학교 5교

□ 소속 공공기관 : 21개 기관, 27,407명

기 관 명	주요 기능	정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관리·운용 및 복지사업 수행	194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 및 학술 연구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제작·조사, 교육분야 정보화 사업 및 관리와 이의 활용을 위한 연구	187명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 통계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 수립 지원	240명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문헌의 수집·연구·편찬·보급과 고전문헌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95명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의 및 독도 관련 바른 역사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99명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문화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국내외 한국학 분야 연구자 및 교수 요원 양성	225명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59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학습자에 대한 지원	90명
국립대병원 (13원)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 도모	26,218명

3. 예산 현황

□ '14년 총지출 : 총 54조 2,481억원* (정부 총지출 355.8조원중 15.2%)

* 예산 50조 1,934억원 + 사학진흥기금 등 기금 4조 547억원

○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등 교육 분야 집중 투자

< 참고 : '14년 교육부 예산 세부 현황 >

□ '14년 교육분야 예산 규모는 50조 1,934억원

○ 유아 및 초·중등교육 : 41조 1,370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조 8,681억원 /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1,008억원 등

○ 고등교육 : 8조 4,177억원

* 국가장학금(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포함) 3조 4,575억원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610억원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2,031억원 등

○ 평생·직업교육 : 5,384억원

*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141억원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2,696억원 등

○ 교육일반 : 1,003억원

□ '14년 사회복지분야(사학연금) 예산 규모는 3조 8,204억원

□ '14년 교육분야(사학진흥기금) 예산 규모는 2,343억원

4. 소관 법률

□ 교육부 소관 법률: 총 63건

○ (단독입법) 「교육기본법」 등 60건

○ (공동입법) 「자격기본법」 등 3건

* 자격기본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고용노동부), 한국연구재단법(미래부)